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197호 2010년 9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 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베트남 서울대 동창회 첫 출범 모교출신 현지인 43명 모여 결성

외국인 서울대 동창회가 해외에선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결성됐다. 지난 7월 3일과 4일 베트남 출신 모교 졸업생 43명과 모교 장재성 전 학생처장, 외국인지원센터 이상익 팀장

등이 베트남 하노이시 대우호텔과 호치민시 뉴월드 호텔에서 베트남동창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하노이 지회(29명)와 호치민 지회(14명)로 나뉘어 동창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초대 회장은 지난 2002년 모교 농생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하노이 개방대 생명공학과 응웬 반 다오 교수가 맡게 됐다. 호치민 지회장은 지난 2008년 역시 농생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호치민 농업대 식품생물공학과 르 캉 트리 교수가 선출됐다.

이상익 팀장은 “모교와 동문들의 발전 뿐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공동 번영을 다짐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베트남 동문들은 대학, 정부 기관, 다국적 기업 등 베트남의 주요 분야에 진출해 있다.

모교는 리더 층에 속하는 이

←모교 장재성 전 학생처장(오른쪽)이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베트남 서울대 동창회’를 처음 결성한 뒤 관계 인사들과 축하하고 있다.

들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2008년 말부터 국가별·지역별 외국인 동창회 결성 작업인 ‘SNU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해 6월에는 외국인 졸업생 700여 명의 신상 명세와 연락처가 담긴 명부를 완성했으며 베트남·몽골·중국 등 비교적 졸업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창회 결성을 주선했다.

아직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은 모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면 정치·경제·사회 지도층 인사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차원에서 이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교에서 공부하는 외국계 학생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영어권 학생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일본·러시아·몽골 순이며 베트남은 6대 메이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장재성 전 학생처장은 “베트남 동창회의 창립은 서울대를 졸업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자국에서 동창회를 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곳을 시작으로 몽골·중국 등지에서도 동창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교 홍보실〉

‘Brain Network 구성사업’

Workshop 11월6일 실시

미주 총동창회 현 10대 회장단(회장 송순영)이 출범하면서 추진해온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Brain Network 구성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한 세부 계획 중 하나로 11월 6일 LA에서 첫 ‘Workshop’을 개최한다.

이 ‘Workshop’은 ▶정치·사회분과 ▶경제분과의 두개 패넬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에 대한 ▶종합 토론회로 실시될 계획이다.

정치·사회분과 패넬에서는 Claremont McKenna College 이체진 석좌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

이 분과의 강연진은 4명의 동문 교수로 먼저 Claremont McKenna College 강명구 교수가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게 된다.

이어 Georgia대학의 박한식 석좌교수가 ‘북한 정치의 현황과 전망’, California 주립

대 유의영 교수가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 차이:과제와 전망’, Cincinnati대학 김한교 교수가 ‘올바른 통일관의 함양’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경제분과 패넬에서는 Rochester대학의 장용성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는 데 강연진은 역시 4명의 동문 교수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강연은 South Alabama대학의 장세문 교수가 ‘남북한 무역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New York 주립대 윤봉준 교수가 ‘남북 통일을 대비한 경제 제도 정비:노동, 복지를 중심으로’, Wisconsin 대 김선웅 교수가 ‘한국의 교육 및 R & D 정책의 이슈들’, Howard대 정진길 교수가 ‘경제 전환국의 환율정책과 그 효과가 남북한에게 시사하는 정치 경제적 의미’를 주제로 각각 강연할 계획이다.



↑지난 6월11부터 13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제19차 평의원 회의장에서 송순영 회장(오른쪽), 이체진 석좌교수(가운데), 고병철 명예교수(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장)가 ‘Brain Network 구성사업’을 위한 Workshop에 대해 자세하게 상의한 뒤 함께 촬영했다.

이 두개 패넬이 끝난 뒤 종합 토론회의 장은 Uni. of Illinois at Chicago의 고병철 명예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

앞에서 강연한 내용을 주제로 여러 분야에 걸쳐 토론회가 진행되며 참관자들의 질의 응답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Brain Network 구성사업’은 미주 6천여 동문들의 두뇌자원을 분야별로 조직화해 모교를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끌어 올리는 과업에 대한 협력은 물론 모국의 선진화 과업에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단된 것이다. <관계광고 32면>

PRSRT STD
NON-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특집·특별기획

박명진 첫 여성부총장·작가 이문일 인터뷰 / 한일병합의 배경.....8·11·13면

종합

미주 • 모교 • 동문소식



미주 한인 젊은 세대 대장암 증가 서울대병원 LA사무소 조사

30대 10% 40대 22% 등
청장년층 발병률 늘어

미주 동포 중 30~40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전구 병변인 선종성 용종의 유병률이 매우 높

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서울대 병원 LA 사무소(소장 애니스 박)에서 집계한 것이다. 애니스 박 소장은 “지난

←서울대병원 외과 박규주 교수(왼쪽)가 대장암 환자의 환부에서 암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주변 조직을 박리하고 있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LA 오피스를 통해 서울대 병원 강남센터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미주 한인 중 12명이 암 의심자였다”며 “그중 10명이 암 확정을 받았으며 10명 중 4명이 대장암 환자로 진단된 바 있어 미주 한인들에게서도 대장암 발생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진-김영선 서울대 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 소화기 내과 교수팀은 2004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건강검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5천254명(30대 608명, 40대 1천930명, 50대 2천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30대는 10%, 40대는 22%, 50대는 33%로 50세 미만 젊은 연령층에서도 기존 보고들에 비해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대장암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동물성지방 과다 섭취 및 섬유질 부족 등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술, 담배 등이 추정되고 있다.

모교 수의대 강경선 교수팀

줄기세포 ‘노화의 비밀’ 처음 밝혀내

성체 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일찍 늙어버려 제대로 못쓰게 되는 이유를 모교 연구팀이 처음으로 규명했다. 이에 따라 성체 줄기세포를 질병치료에 이용하는 데 최대 난점으로 꼽혀 온 ‘조기노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교 수의과 대학 강경선 교수(사진)팀은 성체 줄기세포의 노화가 기존에 추정했던 것처럼 선천성 유전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후성기 유전적 조절 메커니즘에 의해 노화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이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 ‘세포 및 분자 생명과학(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 최근호에 두 편의 논문으로 잇따라 게재됐다. 연구팀은 무엇보다 이번 성과에 따라 성체 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길을 연 것은 물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줄기세포의 노화현상 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화현상 자체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는데서도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즉 인간이나 동물의 노화는 몸의 재생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고, 이런 재생능력과 관련된 게 각 조직이나 장기에 분포하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인데, 노화과정에서 성체 줄기세포의 기능과 숫자가 줄어들면 이제 곧 노화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강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노화 조절이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보다 염색체상의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와 관련된 있는 폴리콤브(polycomb) 단백질과 JMJD3단백질의 역할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줄기세포의 노화와 특이적으로 관련있는 HMG2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마이크로 RNA 3개를 처음 발견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연구팀은 이들 마이크로RNA가 실제로 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HMG2가 줄기세포의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증명했다.

그동안 노화 조절과 관련한 마이크로RNA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이 줄기세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강경선 교수는 “마이크로 RNA는 세포 내에서 다양한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써 분화, 성장 및 사멸 등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특히 줄기세포의 노화와 관련한 특이 마이크로 RNA를 찾아내는 것은 줄기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이 노화과정에서 생성, 변화되는 마이크로 RNA가 있다면, 노화 현상도 규명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주 동문 여러분들에게

“동창회관 건립모금에 적극 동참을...”

지난 2007년부터 건립에 착수한 모교 총동창회 회관은 금년 12월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지상 19층에 지하 6층의 거대한 건물이 마포 중심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동창회 회관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규모로 동창회 사무실 이외에는 모두 임대되며 여기에서 나온 수입은 재학생 장학금과 교수 연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동창회원들의 헌신적인 회사로 목표액 300억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임광수 총동창회 회장께서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동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문 수가 1천600여 명이나 되는 뉴욕 동창회에서는 이미 여기에 동참할 것을 결정하고 1인당 100달러씩 기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모교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장학금과 교수 연구비 증대에 이바지하는 이 동창회 건물 건립에 협력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금에 참여한 동문들을 예우하기 위해 회관 18층에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며 여기에는 각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져 영구 보존될 것입니다.

임광수 회장께서는 “액수는 적더라도 별도 동판을 만들어 보존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판에는 기증 동문들의 인적 사항이 새겨지며 총 액수는 기록되나 개인별 기증액은



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이 모교 동창회관 건립에 협조했다는 기록이 영구 보존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먼 훗날 이 동창회관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조부모 이름을 발견할 때 더욱 커다란 감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금 마감은 올 11월 말까지입니다.

동창회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앞장을 서서 이웃 선후배 동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업에 많은 동문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주 총동창회장 송순영>

*동창회관 건립기금 보내실 곳
SNU Alumni Asso.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금액과 함께 출신 단과대학, 입학년도, 연락처 명기 바람



모교 후기 학위수여식 치러

총 2천344명에 학·박사

모교 200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5(수)~31일(화) 단과대학·전문대학원별로 관악 및 연건 캠퍼스에서 열렸다.

전체 학위 수여식 행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단과대학별로 열리는 이번 학위 수여식에

서는 학사 965명, 석사 885명, 박사 494명 등 총 2천344명이 학위를 받았다.

최우등 졸업자(평균 평균 3.9 이상)는 76명, 우등(평균 3.6 이상) 졸업자는 211명이다.

또한 외국인은 학사 10명, 석사 93명, 박사 24명 등 127명이 새롭게 서울대 동문이 됐다.

이번 호의 차례

3. 미경제의 불확실성/민주화 이후 지식인
- 4~7. 미주 동문 동점
8. 박명진 여성부총장/오기창 박사 추모시
9. 아시아 노벨문학상<2>/화제의 동문
10. 한미 박물관 건립은 우리의 책임

11. 작가 이문열 동문 인터뷰
12. 광복절 65주년의 투란도트/8.15와 통일
13. 한일병합의 배경
14. <여행기>벤쿠버 나들이
15. 세계명화 지상감상<앙리 마티스>
- 16~18. 지역소식<필라·뉴욕·시카고·남가주>
19. 한국의 미와 멋

20. 고국 동문 신간안내
21. 고국동문 동점
22. 고국동문동점·미주동창회 재정보고
23. 동창회비명록
- 24~29. 동문 업소록
30. 동창회 조직, 각 지부 회장단
- 31~32. 광고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논설위원:김일훈(치) 김창수(NY)
김재환(WA) 남채홍(NY) 백순(OC)
오강남(BC) 육길원(치)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패(SF)
장석정(치) 정홍택(PA) 한창섭(NY)

편집위원: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호(공) 홍혜혜(사)

칼럼

미 경제 & 지식인

미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경기비관론 고조



백 순(법대 58)
연방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최근에 들려오는 경제뉴스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경제성장, 소비자 지출, 주택 시장, 제조업 등에 관련된 경제통계는 경제침체의 더불림이나 경제성장의 회복 등을 전망할 정도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지난 8월 6일 발표된 2010년 7월 실업률 통계는 비관적 경제회복전망을 불유쾌하리만큼 높이고 있다.

7월의 공식 실업통계는 실업자 1천460만 명에 실업률 9.5%로 정상시에 비해 2배 이상의 실업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자의 공식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일할 의사는 있지만 찾기가 힘들어 일자리를 포기하여 공식 노동력에 한계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과 파트타임 일을 바라지만 없어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 통계까지 통산할 경우, 실업률(노동비유율, Labor Under-Utilization)은 16.5%선으로 폭등하게 된다.

실업의 평균기간이 대경제침체 전인 2007년 16.8주였던 것이 2010년 7월에는 2배 이상 늘어난 34.5주로 장기화된 것만 봐도 현 실업상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깊은지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있었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개시장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벤 버냉키 의장도 보기 드물게 미국경제의 불확실한 전망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취할 수 있는 화폐금융정책의 옵션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2008년 대경제침체가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경제정

책의 양쪽 바퀴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과 연방준비은행의 화폐금융정책을 과감하게 질주시켰다.

8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스티물러스 정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이고, 0%에 가까운 단기이자율과 2조 달러를 훨씬 넘는 금융완화(정부채권과 시중은행 채권구입을 통한 금융방출)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연방준비은행의 화폐금융 정책이었다.

물론 경제전문가들과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공황으로까지 빠졌을지도 모를 최근의 경제위기를 그래도 이 정도로 막은 것은 이 쌍륜경제정책의 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공황을 모면했는지 몰라도 이 쌍륜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바랬던 경제회복이 지체되고 더욱이 일자리의 창출이 제자리 걸음, 아니 후퇴하는 것 같다.

따라서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재정 적자문제를 안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경제정책 결정자들과 0%의 이자율의 한계에 접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금융정책결정자들이 어떠한 경제정책을 세워나가야 국민경제의 회복, 특히 일자리의 창출을 결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경제정책의 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쌍륜경제정책의 고민거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의 고민거리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을 어느 정도 더 추진할 것이며, 세금정책으로 2010년 말로 만기되는 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재정지출 정책중 주 정부의 일자리 상실 방지를 위한 26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법안이 지난 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원래 500억 달러규모였던 것이 재정적자 누적의 우려로 반으로 삭감되어 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융자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에너지/인

프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언제 논의, 입안될는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재정적자의 축소와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2개의 상반된 이해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정책 중 가장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2000년과 2003년부터 입안, 실시해 온 감세정책이 금년 말로 만기를 맞게 되는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하여 만기를 그대로 방치하느냐, 아니면 일자리의 새로운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감세정책으로 바꾸느냐 하는 고민인 것이다.

둘째, 연방준비은행의 고민은 0%에 가까운 이자율과 2조 달러가 넘는 금융완화로 유례없는 화폐금융 방만정책의 한계에 다다른 연방준비은행이 경제회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얼마 전 벤 버냉키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경제에 앞으로 인플레이의 위험이 그리 크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화폐금융정책의 다른 옵션이 있음을 시사 하였다.

즉 0% 이자율을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연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이 2조 달러를 넘는다 할지라도 금융완화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옵션을 나타낸 바 있다.

경제회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재정지출의 확대(제2의 스티물러스 정책)/감세의 계속추진과 화폐금융의 완화(제2의 정부·기업채권 구입)를 제창하는 Liberal View가 있는 반면에, 재정적자의 폭증과 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우려하여 재정지출의 축소/ 감세의 만기와 화폐금융의 긴축을 주장하는 Conservative View가 대치하고 있어서, 오바마 정부/의회와 버냉키 의장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경제정책 결정을 수행해야 할지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경제의 불확실성과 고통(불안정성)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경제회복의 시기에 대한 대답이다.

민주화이후 지식인의 사명

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땀을 흘릴 때, 농민들이 피약별 아래에서 힘든 농사를 지을 때,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다.

이들 지식인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도 자신이 재배한 것이 아니다. 이웃 근로자와 농민의 땀과 노력 덕분에 자신들의 생활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지식인들은 이웃 근로자들과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웃에 진 빚을 갚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지식인의 사명(使命)의 문제다.

그동안 '민주화 이전'의 시대에는 지식인의 주된 사명은 권력비판과 사회 고발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과 사회의 비리와 부조리를 엄하게 꾸짖는 지식인의 비판정신과 지적 용기를 높이 존경해 왔다.

지난 기간 지식인들은 권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이웃에 진 빚을 갚아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민주화 이후', 21세기 '선진화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새 시대에 걸맞은 지식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성찰이 부족하다. 지금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인 무절제한 권력비판의 전통이 강하다.

무조건 권력과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난하는 것이 선(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심지어 지난 번 천안함 사건에서 나타나듯, 일부 지식인들은 정권비판을 위해 객관적 사실과 진실도 외면하는 반(反)지성(知性)의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공인(公人)으로서의 지식인(public intellectuals), 우리가 존경하던 올곧은 선비가 아니다.

그러면 '민주화 이후' 시대 지식인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제는 권력에 대한 무한비판에서 공동체에 대한 무한사랑과 책임감으로, 단순한 비판정신에서 대안제시와 책임정신으로 바뀌어야 한다. 반(反)권력의 '지적 전투성'이 아니라, 진실을 존중하는 '지적 정직'과 공동체 사랑이라는 '지적 윤리'가 보다 강조돼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지식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와 이 나라가 처해 있는 국내의 어려운 사정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격변의 초(超)세계화 시대, 동북아 신질서 시대에,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

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밤잠을 설치면서라도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21세기 '선진화 시대' 지식인의 사명은 '국가가 나아갈 길'에 대한 올바른 공론(公論)을 세우는 데 있다. 여기서 공론이란 사회의 지배적 견해인 여론이나 다수의 견해인 중론(衆論)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론은 전문 지식인들이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선을 위해 노심초사 심사숙고하여 제시한 견해다. 그래서 공론은 단순한 여론(public opinion)이 아니고 그 시대 집단지성의 공적 판단(public judgment)이고, 한 시대를 끌고 갈 정론(正論)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 공론이 바로 서야 한다. 국가운영이 인기 영합적으로 일시적 여론과 중론에 따라 수시로 흔들려선 안 된다.

그래서 이윤곡 선생께서는 먼저 근거없이 떠돌아 다니는 비(非)전문가들의 속설인 소위 부의(浮議)를 경계하셨다.

그리고 나라 운영은 반드시 원칙과 도리에 맞는 공론에 따라 할 것을 주장하시며, "공론이 조정(朝廷)에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공론이 항간에 있으면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만약 위 아래 모두 공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 "공론이야말로 나라의 원기(元氣)이고, 이 공론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림(士林) 즉 선비의 사명이다."

환언(換言)하면 지식인의 사명이라고 하겠다.

이제 권력과 사회비판만이 지식인의 사명인 시대는 갔다.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올바른 공론을 세우는 일이 지식인의 주된 사명이 돼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권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데 있다. 지식인의 전투성 부족이 아니라 지적 정직과 성실, 공동체 사랑과 애국심 부족이 문제다.

오늘의 지식인들은 시대 변화를 읽고 자신들이 '사회에 진 빚을 갚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분발해야 한다.

동문 시 감상

나타나지 않는 그 누군가가

김태환(법대 46, 메릴랜드)

나타나지 않는 그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 싶어
창문 열어 내다 보니
마당엔 달빛만 비쳐요

나타나지 않는 그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 싶어
대문 열어 바라다 보니

마당엔 낙엽만 굴러 와요
나타나지 않는 그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 싶어
마당에 살며시 내려 서서 보니
마당엔 술술 바람만 불어 와요

그리운 님 떠나가심에
잠 못 이루는 밤
나 홀로
그대 생각이 나 불러보았어요

그리운 님을 불러보았어요

동문 동정

활동 · 강연



주미대사 한덕수 동문

대도시 순회 안미 FTA 홍보 활동

동문 한덕수 주미 대사가 지난 8월 17일 시카고를 찾아 시카고 상의에서 한미 FTA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 대사는 이날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DLA Piper사에서 열린 시카고 상공회의소 주최 비즈니스 이벤트에 참석해 이같은 활동을 펼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시카고 상의와 제록루트 컨설팅, 윌드비즈니스 시카고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 대사는 이날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경제, 우호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향후 비준 일정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아울러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 대사는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한미 양국간 우호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사는 또 “의회 비준은 레임덕 기간 중에도 가능하겠지만 올해 말 선거 이후 내년 초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를 마련한 시카고 상의 랜스 프레슬 회장도 “시카고 지역 경제에 한미 FTA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서비스 업종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사가 직접 방문, 관계자들에게 이런 점을

한덕수 주미대사(왼쪽)가 시카고 상공회의소에서 미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FTA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게는 연방 상하원의원들에게 보낼 한미 FTA 비준 촉구서한이 나눠졌다.

한 대사는 시카고에 오기 전 16일 피오리아의 캐터필라 회사를 방문해 더글라스 오버헬만 CEO와 면담했다.

이어 17일에는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 빌 포스터 연방하원의원을 만났으며 삼버그의 Quality Float Works를 방문했다.

한 대사는 18일 미시간으로 이동, 디트로이트의 현대 모터스 공장 등을 찾는다.

한 대사는 한미 FT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엘라메마와 일리노이, 그리고 미시간 등 대도시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가든 꾸미는 노재욱 동문

“한국 정서에 맞는 정원 만들것”

노재욱(의대 58) 동문이 시카고에서 처음 설립되는 한인문화회관의 정원을 꾸미는 역할을 담당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도 즐기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에 맞게 한인들의 정서에 가장 맞는 정원을 꾸미려고 합니다.”

10월 개관 예정인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 근사한 정원이 들어선다.

문화회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마련된 이 정원에는 사과나무와 상록수 같은 나무가 이미 심어져 있다. 여기에 국화와 도라지, 백합, 초롱꽃 등이 곳곳에 들어섰다. 대부분 노재욱 동문 집에서 옮겨진 꽃이다. 또 니코티아나, 수백, 블랙아이드수관, 오펜조이, 드래곤블러드와 같이 재미 있는 이름의 꽃들도 가득하다. 건물 바깥으로는 무궁화 나무 17그루

가 심어져 있다.

수분 유지와 잡초를 막기 위해 프리미엄 아메리칸 하드우드 멀치가 깔아져 있는 등 정성이 눈에 띈다.

이 정원에 대해 노 동문은 “두 달에 걸쳐 정원을 꾸몄는데 이 정도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시카고 문화회관 개관에 맞춰 국화도 심고 내년 봄에 씨를 뿌릴 때에 맞춰 윈추리, 작약 등도 심을 계획입니다. 나를 포함해 문화회관 이사 등의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꾸민 것이라 더욱 의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67년 시카고로 이민한 노재욱은 시카고 보태너 가든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노 동문의 집 정원은 1997년 시카고 트리뷴이 선정한 최고의 가든에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내 50개주를 모두 여행 다녔고 사진과 시로 여가를 보낸다는 노 동문은 “시카고 문화회관 정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한국정원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장학재단 초대이사장 김웅수 박사

“남은 여생도 장학활동에 바칠터”

한미장학재단(KASF) 초대 전국 이사장을 지낸 동문 김웅수 박사(88)는 25여년간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장학사업을 이끌어온 재단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박사는 최근 워싱턴 한인교회에 한인 독거노인들과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평생 모은 재산 25만달러를 기탁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다.

김 박사는 1969년부터 워싱턴 DC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한미장학재단의 워싱턴 DC 지역 5대 회장을 맡고 있던 82년 당시 이 재단을 미 전역으로 확대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해 그 결과 지금의 서부, 남부, 중부, 북동부 지역을 포함 총 6개 지부에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김 박사는 “장학재단이 동부에서만 운영될 당시 10명에게 각각 1천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지만 미 전역으로 확대된 현재 매년 350여명에게 2천 달러씩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미주지역에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인 자녀들에게 적은 액수지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1923년 경북 김천의 지혜면에서 태어난 김 박사는 한 살이 되기 전 독립운동을 위해 조국을 떠난 조부와 부모를 따라 만주로 이주했으며 모교 법대 2학년 재학시절 군에 입대하고 잔류를 결정한 뒤 육군 소장까지 진급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5.16 당시 쿠데타에 반대해 반혁명 혐의로 복역하다 62년 풀려나 도미한 뒤 시

애들의 워싱턴 주립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받고 72년 미 가톨릭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교수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맞이했다.

김 박사는 “한국에서 군생활을 할 때부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한미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 가운데 일부가 현재 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한미장학재단은 장학금 수상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수상자들이 진학하게 될 학교 위치를 기준으로 지역별 장학생을 선발한다. 결국 각 지역별로 장학금을 기탁하는 한인 기부자들은 남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이 차세대 한인 리더 육성에 초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주한국일보>



신부 유시찬 서강대 이사장

성토마스 성당서 신자들 위한 특강

가톨릭 신부로 서강대 이사장인 유시찬 동문이 뉴욕의 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김기원)초청으로 지난 8월 신자들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 특강은 한인천주교회 세 성전 봉헌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것으로 미주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영신수련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다.

유 신부는 첫 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영신수련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양명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째 날에는 ‘관점의 변화’라는 타이틀로 이원대립론적 사고의 한계 및 병폐와 이중성의 원리에 관해, 마지막 날에는 ‘삶의 태도 변환’이라는 타이틀로 묵상적 삶에서 관상적 삶으로 옮겨감과 복음 관상

의 묘미에 관해 강의했다.

유 신부는 이번 특강에서 갈등과 투쟁을 초래하고 조화와 통일, 균형과는 거리가 먼 이원대립론적 사고가 어떻게 영적 여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가를 비롯, 신앙의 가장 본질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 신부는 모교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0년 예수회에 입회한 뒤 일본 상지대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1997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예수회 ‘말씀의 집’ 원장, 학교법인 서강대 이사, 서강대 예수회공동체 원장, 서강대 교육사도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8년 6월부터 서강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정자들을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영신수련 안내서 ‘한 영신수련’을 지난해 내기도 했다.

동문 동정

부임 · 인물 · 강연 · 전시회

장대섭 신임 입법영사

“동포들 권익 법제화에 최선을 다할 것”



장대섭(45·사진) 동문이 LA총영사관에 신임 입법 담당 영사(입법관)로 새로 부임했다.

장 동문은 “의원 외교 활동을 극대화시켜 LA 한인사회 권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신임 입법관으로서의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장 동문은 “2012년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 내

에서의 논의 방향과 법안 개정 경과 등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를 한인 사회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 동문은 또 “재외국민 참정권과 복수 국적에 관한 한인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지난 달 귀국한 전상수 전 입법관 후임으로 부임한 장 신임 입법관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수료했다.

그 뒤 미국에 와 오리건 대학교 공공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입문한 이 후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입법조사관, 국회 예산분석관,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 의사국 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 찬양 선교단

뉴욕 은혜 양로원서 위문공연 펼쳐

모교 성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찬양선교단이 지난 7월 30일 뉴저지 사우스 엠보이에 있는

은혜가든 양로원을 방문, 위문 공연(사진)을 펼쳤다.

미주 순회 공연 가운데 양로

원을 방문한 선교단은 이날 독창·중창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모교 찬양 선교단은 지난 7월부터 미주 순회 공연과 양로원 찬양 등으로 동포 사회의 사익 활동과 함께 봉사활동까지 인도해왔다.



김익영 동문

‘도자속의 삶’ 현대 한국작가 5인전

지난 8월 UCLA 파울러 뮤지엄(Fowler Museum at UCLA)에서 한국 도예전과 나무꼭두 전시회가 열렸다.

‘도자 속의 삶: 현대한국작가 5인전’(Life in Ceramics: Five Contemporary Korean Artists)을 제목으로 열린 이 도예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라믹 아티스트 김익영 동문을 비롯해서 윤광조·이강효·이인진·이영재 등 5명의 작품 350여점이 소개된 대형 기획전이였다.

비글린드 용만 UCLA 한국미술사 교수(전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가 큐레이트 하고, 코

리아 파운데이션의 지원으로 열린 이 전시회에서는 용만 교수가 작가 김익영 동문과 대화를 갖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김익영 동문은 조선백자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낸 한국 현대 도예의 1세대 작가로 꼽힌다. 1960년부터 50년 동안 기술적으로 최고 수준의 백자 창조의 외길을 달려온 김 동문은 소박하고 청아한 한국의 정서를 담은 그릇,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융화된 생활 도자기들을 창조해 왔다.

곡선보다 직선을 많이 사용하는 샤프한 조형 감각으로 둥근 형태에서 각진 사면체로의 전

환하는 방법을 통해 전통적 도예의 한계에서 벗어나 현대성과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그는 고운 선을 지닌 교묘한 자보다는 형태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동시에 지닌 조선시대 제기에서 발견한 독특한 형태미를 발전시켜 사면체 형태의 백자를 만들었으며, 1965년 첫 개인전에서 이를 소개한 후 그너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백자라는 매체의 고급한 이지주의에다 세련된 추상성과 생활주의를 융화시킴으로써 실내외에서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조각적 세라믹 아트를 창조했다.

1935 함경북도 청진 출생으로 모교 화공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요업공학을 전공했다.

뉴욕 알프레드 대학 요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립박물관에서 3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백자에 대한 심미안을 쌓았으며 이후 한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수많은 초대전을 가졌다. 25년간 국민대학교수로 재직했으며 2004년 윤광조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영국 대영박물관과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 디트로이트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등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뉴저지 가정상담소장 안선아 동문

“항상 고통받은 동포들의 친구가 되죠”

안선아 동문(사진)이 지난 달 1일부터 AWCA 뉴저지 가정상담소 소장으로써 동포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안 동문은 “업무인수 등을 이유로 뒤늦게 소장 취임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안 동문은 앞으로 ▶전문 상담기관으로 도약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대 협력 ▶한인사회 아웃리치 확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변화 및 증진에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해 뉴저지 가정상담소 클리닉 서비스 디렉터로 부임했던 안 소장은 ‘그레이스 핫라인’을 개설, 매 분기마다 상담 사례 및 통계를 발표하는 등 그간 뉴저지 한인사회 정신건강 쟁거기에 주력해왔다.

안 동문은 “가정폭력과 불화, 아동학대, 성폭력,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제 더 이상 홀로 마음에 병을 키우지 말고 상담소에 연락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교에서 건축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한 안 동문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필립비아 대학에서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퀸즈 차일드 가이던스 센터를 거쳐 2004년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소장으로 5년간 뉴욕 한인사회 정신건강을 돌보는 지역 한인사회의 정신건강 지킴이 가운데 한 명이다.

“앞으로 전문 상담기관으로 도약하는 가정상담소가 되겠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신맹호 동문

고국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으로 전임

동문 신맹호 주샌프란시스코 전임 부총영사가 지난 달 8일 고국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으로 임명돼 귀국했다.

신 동문은 모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됐다.

신 동문은 이어 지난 2009년

2월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로 부임해 지금까지 이 지역 동포들의 복지를 위해 일해왔다.

그러나 신 동문은 1년5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을 뒤로 하고 지난 달 이임한 것이다.

많은 동문들과 주변 친지들은 그의 짧은 재직기간을 아쉬워 하고 있다.



동양화가 안성민 동문

퀸즈 미술관서 수묵화 지도

동양화가 안성민 동문이 지난 달 28일부터 뉴욕 퀸즈미술관에서 한국어로 수묵화를 지도해오고 있다.

안성민 동문은 퀸즈미술관이 ‘뉴아메리칸’ 한국어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한 수묵화 교실 강사를 맡아 8월 28일에 이어 9월4일, 11일, 18일, 25일과 10월2일, 9일, 16일 등 8차례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묵화를 가르쳐온 것이다.

한국의 전통 회화를 배우며 한국문화와 철학을 이해하도록 마련된 이번 수업은 수강료 없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안 동문은 모교 미대와 메릴랜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문의는 718-592-9700 x 135(로호세)

동문 동정

공연·부임·출간



세계적 테너 이용훈 동문

내년 1월 이탈리아 밀라노 공연

9월18일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에서 공연한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 동문이 내년 1월 이탈리아로 간다.

밀라노의 라 스칼라에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데뷔하며 비상한 날개를 펴게 되는 것이다.

"찬양선교가 메인이고, 오페라 가수는 사이드 잡이다"

세계 오페라 무대의 최정상에서 작품들의 주연을 독차지하고 있는 테너 이용훈 동문은 지난 2007년 토론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욕 생명샘 교회의 찬양선교사라는 이름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토론토 중앙일보에 게재됐던 기사를 전제한 것이다. 이 동문은 소년시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공부를 너무 못해 "나중에 구두땀이나 땀 것"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1987년 서울의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중2 소년은 "주님을 위해 구두를 닦겠다"고 눈물로 약속했다.

노래에는 자신에 차 있던 이 동문은 전문인을 소개받았고, 선교사였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배향종계 원서를 내밀었다.

필기시험은 엉망이었지만 실기에서 음대 전체 수석을 차지

한 그를 놓고 교수들은 긴급회의를 열기까지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필기시험과 실기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을 겨우 넘기면서 입학의 감격을 안았다.

그러나 음대 4년은 큰 실망과 상처, 실패로 끝났다. 유일하게 잘할 수 있었던 '성악'을 포기하고 1년 반을 방황하는 사이 98kg였던 몸무게가 60kg로 줄었다.

'사람을 위해서는 노래하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던 그는 "나를 위해서 노래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다.

전액 장학생으로 학비는 해결됐지만, 집안이 IMF로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보조가 끊겨 굶는 날들이 많았다.

그러나 충신대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고 초교과 자비량 선교단체 '배다니 선교회'에서 만난 아내(이은영)의 격려로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2004년 뉴욕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 성악 경연대회와 2006년 푸치니 국제 콩쿠르에서 잇따라 우승하면서 세계 정상의 명성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됐다.

생명샘 교회 찬양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많으면 1년에 3~4차례씩 남미 등에서 자비량 콘서트를 열던 그는 메트로폴리탄

이용훈 동문이 오페라에서 돈호세 역을 맡아 열창하고 있다.

오페라, 이탈리아 라스칼라, 로마, 영국 로얄 오페라,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뮌헨, 쾰른, 스페인 마드리드 등 세계 주요 극장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하며 지금도 매년 찬양콘서트를 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3월21일 성금요일에 성대를 다치는 큰 사고를 겪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오프닝 공연 도중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 시간 저를 위해 단 한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나요"라고 절규했다.

그때 그가 계속 전도했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 청년(25)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피곤했던 생명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체험한 순간이었다.

1주일 후 베를린의 세계적인 성대 전문의는 당장 수술을 하고 5개월간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는 "깨끗함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귀국했고, 그로부터 한 달도 안돼 성대가 완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감동적인 간증과 폭발적인 노래가 어우러진 이날 토론토 콘서트에서 그는 앵콜 송을 6곡이나 불렀다.

청중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겠다며 전원 기립해 약속하는 보기도문 광경을 연출했다.

이광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미국학교 한국어보급 위해 SF방문

"북가주에서 '한국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이광규 동문이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시에틀에서 개최된 세계국제 결혼총회 주제연사로 강의를 마치고 LA로 가던 길에 들른 이 동문은 "북가주에서 더 많은 미 중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면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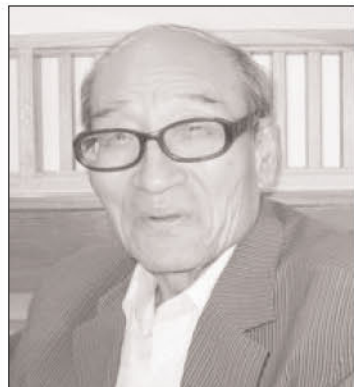
모교 교수 출신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재외동포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이 이사장은 한국에선 해외동포문제 최고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동포사회 성장의 출발은 한인 후세들의 한국어 사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류사회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한국어 보급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동문에 따르면 미국의 3만 8천여 중교 중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1천개, 일본어가 700개나 되는데 반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단 65개 뿐이다.

이 동문은 "현재 미 학교에서 중국어나 일본어 과목을 택한 학생들은 대부분 주류사회 학생들인데 한국어는 한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지난 1996년도부터 SAT 2에서 한국어가 채택된 가운데 3천명 이상이 응시해야 명맥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데 응시자 대



다수가 한인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동문은 "국제 결혼한 한인들이 20만 명, 입양인이 20만 명, 그리고 200만 한인 동포들이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확장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미 국무성이 플랫 스칼라십 등을 통해 권유한 외국어는 2000년 9개, 2004년 6개, 2008년 10개였는데 그중 한국어가 매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동문은 "뉴욕의 경우 2007년부터 한국어과목 채택 준비위원회가 발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체 모금 뿐 아니라 한국 정부서도 적극 후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북가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어 과목 채택 준비위원회가 결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보 동문 '밴쿠버 KBC센터장' 부임

"동반성장에 보탬되고자 합니다"



양국보 동문(사대 80)이 밴쿠버KBC(코트라)에 신임 센터장으로 지난 8월 부임했다.

양 동문은 밴쿠버 발령 전 코트라 본사에서 녹색통상지원처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 CDM(청정개발체제) 타당성 조사와 플랜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양 동문은 "한국 정부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녹색산업은 한국의 능력이 캐나다와 비교할 때 50~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캐나다 회사와 M&A(기업합병 및 매수)를 활발히 지원해 기술력을 쌓는 데

일조하겠다. 자본과 기술이 양국간 왕래할 수 있게 지원해 동반성장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양 동문은 캐나다의 우라늄 등 희귀광물 선전전쟁과 사업 네트워크, 유통망 확보에도 관심을 표시하면서, 이를 위해 BC주 서울사무소와 협력을 하고, 또한 밴쿠버KBC를 수출과 무역 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가의 사랑방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지원도 양 센터장의 관심사다. 한인 사회에서 캐나다에 한국산 프랜차이즈를 개설할 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전 세계에 맥도널드를 확산하듯이 한국 정부도 한국산 프랜차이즈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한국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 진출 1호점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 프랜차이즈가 진출한 지역은 주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이나 최근 세탁업체 크린토피아가 해외진출 밀착지원 13개 업체에 올해 4월 선정돼 LA에 점포를 낼 예정이다.

원미량 동문

'환상적 이끌림'전시회

샌프란시스코 증전 미술가 원미량 동문이 지난 8월부터 9월 26일까지 나파 카운티의 아이월크(I. Wolk) 갤러리와 메이즌리 나파밸리(Maisonry Napa Valley) 갤러리에서 전시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의 타이틀은 '환상적인 이끌림(Allure)'으로, 불을 이용해 스테인리스 철망에 꽃을 그려 넣은 설치 작품들이다.

원미량 동문은 "이번 전시의 특징은 불로 태운 철망 작업에 색

감을 많이 썼다는 것"이라며 "아크릴로 만든 원색의 색깔들이 투명한 강철망으로 스며 나와 신비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원 동문은 지난 3월 한국에서 열렸던 초대 기획전에서 자신의 설치작품들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모교 미대를 수석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 학



위를 취득한 뒤 1984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SF 헌터스 포인트 십야드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

동문 동정

취임·스포츠·전시회·등단



76세의 박인석 동문

1,400마일 자전거 대장정의 노익장

웨스트민스터에 거주중인 박인석(76·사진 앞줄 왼쪽)동문이 자전거 파트너 빌 프리드(68·사진 앞줄 오른쪽)와 함께 워싱턴주 애나코데즈에서 샌디에이고에 이르는 장장 1,400여마일 미 서부 해안선을 자전거로 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29~30일 웨스트민스터시에서 샌디에이고 코스를 달린 후 지난 7월9일 워싱턴주 애나코데즈에서 대장정을 시작, 결국 한달만 만인 지난 23일 예정된 코스를 다 돌고 웨스트민스터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박 동문은 바퀴가 3개 달린 '리컴버트(recumbent)' 자전거로 이같은 중주를 해냈다.

도착과 함께 자전거 동호인들과 무사귀환 축하파티를 연 박 동문은 "대장정을 마치고 나니 일생 가장 값진 도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동문은 "아름다운 서부 해안선을 보며 자동차 여행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피부로 직접 느꼈다. 또한 여행중 많은 유럽인들, 자전거 고장으로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 코스 도전을 잠

시 중단한 대구에서 온 젊은이와 만남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고 말했다.

박 동문은 안전을 위해 자전거 타는 시간을 하루 50마일, 오전 9시~일몰시간으로 제한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약 100마일 난코스 구간도 피했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을 이용해 현재 위치 파악 및 정보를 수집하는 등 테크놀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박 동문은 지난 달 10일 피스모비치에 도착할 무렵 부인 박인희(67)씨가 담석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여행을 중단하고 피스모비치에 살고 있는 딸과 함께 급히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박 동문은 부인이 수술받은 후 다시 열차로 피스모비치로 가서 여행을 재개했다.

모교 공대 재학 중 1959년 도미, UCLA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30여년간 미국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은퇴했다.

박 동문은 지난 2005년 리컴버트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 자전거 모임에서 만난 프리드와 매주 3회 평균 40~50마일을 달리며 실력을 쌓아 왔다.



동문 장만석 박사

워싱턴 침례대학 6대 총장 취임

동문 장만석 박사(사진 가운데)가 최근 워싱턴침례대학교 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해 5월 이사진에 의해 임시총장으로 선임된 뒤 8월1일부터 정식 총장이 됐으면서도 해를 넘겨 취임식을 갖게 됐다. 직원하고 등 조직관리 과정에서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던 탓이다.

장 총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자발적으로 모여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의욕적인 업무 태도는 과거와 달라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학력 인증사업인 'ABHE'에 곧 '셀프 스테디' 서류를 보낼 예정으로, 문제가 없으면 정규 멤버십을 획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셈. 신학 석사 학위 학력인증기관인 ATS는 내년쯤 ATS 관계자들이 캠퍼스를 방문해 실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장 총장은 "ATS가 학교에 직접 온다는 것은 정회원 자격 획득이 희망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교계는 물론 각계에 포진된 인재들을 적극 등용하고 대학의 자원을 한인사회와 나누겠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나는 교육자로 일하지만 선교사가 원래의 부르심"이라며 "전 세계가 우리 문턱에 와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침례대학은 지난 1982년 평신도 사역자 및 목회자 연장 교육을 위해 설립됐다. 대학 5개 학사과정, 2개 석사과정, 신학대학원에 3개 석사과정 및 1개 박사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 가을 등록 학생은 통신 과정을 포함해 600여명. 학부 300여명, 신대원 100여명이다.



설치 조각가 이종건 동문

'천국의 다리' 설치조각 전시회

설치조각가 이종건 동문이 지난 8월12일부터 9월초까지 퀸즈 통아일랜드 시티의 소크라테스 조각공원에서 '천국의 다

리' 설치작(사진)을 전시했다. 이 동문은 소크라테스 조각공원이 뉴욕의 떠오르는 신진작가들에게 주는 펠로십 작가로

선정돼 다른 16인 펠로십 작가들과 함께 강변에 위치한 공원에서 그룹전을 가진 것이다.

이 작품은 뉴잉글랜드 양식의 지붕이 있는 나무다리와 페르시아안 가든 카펫을 조합한 작업. 오래된 나무로 만든 나무다리 바닥에 17세기 페르시아에서 낙원을 상징하던 가든 카펫을 조각해 새겨, 관람객들이 다리를 건너면서 카펫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종건 동문은 모교 미대와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고 로디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뉴욕과 보스턴 등 미국내외에서 20여 차례 전시를 가졌고 2009년에 버몬트 스튜디오 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국 경기문화재단 해외 레지던시 지원 작가에 선정돼 브루클린 윌리엄스 버그에 있는 ISCP(International Studio and Curatorial Program)에 참여하고 있다.

치과의사 김학천 동문

'한맥문학' 통해 수필가 등단



온타리오에서 치과를 개업중인 김학천(사진) 동문이 '한맥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한맥문학 8월호는 신인 수필로 김 동문의 수필 '모국어'와 '반딧불' 2편을 실고 '깊은 감동을 주는 작품'이

라고 평했다.

심사위원들(김병권, 김진희)은 "작품 '모국어'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어, 특히 영어교육에 대하여 어린이 때부터 너무 서둘지 않느냐 하고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라 여긴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동문은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보고 느낀 삶의 경험에서 무엇을 소중히 간직해야 하고 무엇을 고쳐 나갔으면 하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것을 글로 쓰고 남과 나누는 기쁨을 누려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동문은 모교 치대와 USC 치대, 링컨대 법대를 졸업하고 재미한인치과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온타리오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동문 안창호 박사

워싱턴 가정상담소 강연

동문 안창호 박사(렉산 제약회사 회장)가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어떻게?'를 제목으로 워싱턴 가정상담소(이사장 이정화)에서 마련한 세미나에서 지난 8월 강연했다.

이 세미나는 모든 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안 동문은 스트레스의 원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면역질환, 정신질환, 심장질환, 암 등)에 대해 강연한 후 스트레스 관리법을 제시했다.

지난 2001년 신약개발 전문 제약회사 렉산(Rexahn)을 창업한 안 동문은 모교 약대와 미크레이턴대 약대를 거쳐 1985년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렉산 창립에 앞서 연방식약청

(FDA) 실험실장 등 FDA에서 13년간 근무한 뒤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회장을 역임했다.

상담소 에밀리 김 총무는 "가슴이 답답하고 의욕이 없으며 피곤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는 일이 많다. 이는 스트레스 때문이며 스트레스 자체는 외부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적 반응이므로 이를 해소하는데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별인터뷰

첫 여성 부총장 박명진 교수



“보수·진보 기계적 분류 이젠 그만...”

‘국립대학 첫 여성 부총장’으로 임명된 박명진(63) 모교 부총장이 지난 8월 23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여 교수 자체가 귀하던 1980년 신문학과(현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발탁된 지 30년 만이다. 최근 서울 중앙일보와 인터뷰 내용을 전제한다.

박 부총장은 평생 ‘첫 여성’ 타이틀을 달고 다녔다.

한국언론학회장(제30대)과 초대 방송통신심의위원장(2008년 5월~2009년 8월)을 맡는 등 언론학계 안팎의 영향력도 크다.

박 교수가 가르친 ‘영화론’은 영화광을 매혹시키는 명강의로 꼽혔다.

‘기호학·담론분석 방법론’은 문화 연구의 초석을 깔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대 MC로 2년 반 동안 진행했던 KBS 프로그램 ‘TV, 책을 말하다’를 통해서도 이름이 널리 퍼졌다.

첫 여성 부총장으로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아직도 ‘여성 첫’이란 표현이 있다니 그 점이 더 놀랍습니다(웃음). 대학사회, 특히 국립대에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부담이 됐을 텐데, 총장께서 굉장히 용감한 일을 감행하신 셈이지요.

-(방통심의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꼭 1년 만의 귀환인데요.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하며 그동안 미뤄뒀던 책을 쓰려고 준비했어요. 영화를 보고 차 맛을 음미하며 ‘느리게 살기’의 충만함을 깨달았습시다.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일차적으로 우리 세대 여성

이 사회에 진출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래 들어 여교수의 비율이 늘어났지만 보직을 통해 행정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는 여전히 제한돼 있어요.

-여성으로서 학교나 학계의 무엇을 바꿀 수 있나요?

▶남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었던 성차별에 대한 민감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평등은 넓게는 인권의 문제지요. 서울대 전체 재학생의 40%가 여학생이고, 5%가 외국인입니다. 장애인 학생도 70여 명이나 되고요. 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총장을 도와 인권과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심을 갖는 ‘따뜻한 서울대생’을 키우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선발 방식으론 힘들 것 같은데요.

▶서울대가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예일대는 트레일러에서 생활하는 빈곤 가정 학생을 선발합니다. SAT 점수는 좀 모자라지만, 그런 환경에서 그 정도 능력을 보여준 아이라면 예일대에선 폭발적인 성취를 이룰 것이라 믿는 거지요. 우리도 ‘공부하는 기계’로 훈련된 학생만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총장은 공학자인 남편(이교일 전 서울대 교수·기체항공공학과)과 사이에 두 남매를 뒀다.

서른네 살에 낳은 큰딸(29)은 미 컬럼비아대학에서 예술경영 석사학위를 받았다.

내심으론 배우가 됐으면 했던 막내아들(27)은 차세대 유망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수소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가족들로서 ‘이제 좀 쉬시

나 보다’ 했더니 다시 바빠진 셈인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 사이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힘을 모아주자’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고3일 땐 거기에 집중했지요. 남편이 보직을 맡았을 때는 집안 일이 다 내 차지였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날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정 같은데요.

▶결코 아닙니다. 젊은 시절엔 아내 역할을 못해 남편과 갈등이 있었지요. 아이들도 일만 하는 엄마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셨겠는데요.

▶전혀. 남편은 실험실에서 살았고, 나는 사실 영화·드라마 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너무 바빠서 얼굴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다 자라 서야 가족여행을 한 번 갔는데 내 딸, 내 아들이 그렇게 유쾌한 아이들인지도 몰랐을 정도였어요. 자식을 새로 얻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언제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나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각자에게 저마다의 인생이 있고, 서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뽕짝’과 바둑을 좋아한다면 나는 클래식과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트로트는 질색을 하고 팝이나 록 음악을 듣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취향을 무시하고 비난했지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 남편의 생일 선물로 온 가족이 온가족 자매의 ‘마포종점’을 불러줬을 정도니까요.

-‘밤 깊은 마포종점’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남편 몰래 2절까지 연습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웃음)

▶방통심의위원장은 그가 예순한 살의 나이에 시도한 첫 공직 의도였지요.

-위원장 임명과 사퇴 배경을 궁금해 하는 이가 많은데요.

▶방송 PD도 해봤고 유학 시절 잠깐 영화 연출도 공부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가장 행복했지요. 학교에 있는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 그 일은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였어요. 평생 옳다고 믿고 가르쳐 온 원칙이 훼손되는 걸 바로세우는 일도 소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자면요.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제확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고려대 김민환 교수를 좌장으로 동수의 진보·보수 학자들이 몇 달 동안 논쟁한 끝에 정치적인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성의 기준과 구체화 방안을 담은

조봉완 박사의 부군 오기창 박사 추모시

당신은 갔는데...

조봉완(법대 53)

그 날 밤 당신은 참 편안해보였어요
이제 조용한 방으로 옮겼으니, 천천히 잘 쉬라 했어요
당신은 아무 반응이 없이 계속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쉬라고 했지 영원히 가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옆에서 자는 것도 모르고
남기는 말 한 마디 없이 가다니요

무엇이 그리 급했어요?
내가 가끔 잔소리 하는 것이 듣기 싫었어요?
그럼 그만 두라 하지, 말 들어주었을 터인데...

내가 미웠어요?
그럼 눈 앞에 오지 말라 하지
의자 뒤에 숨어 있었을 텐데...

힘이 없어졌어요?
보약 지어 놓은 것 가지고 오라 하지
다 다려놓고 있었는데...

세상이 무심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해도 뜨고, 비도 오고, 해도 지고...

내가 죄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잠자고
나다니고 하나요?

아쉬워요, 외로워요, 보고 싶어요
나는 왜 여기 있나요?
당신은 갔는데...

2010년 6월4일

오기창 박사의 작고 소식을 받고

조 순(상대 49년 졸, 전 부총리)

평생의 영특한 기상 집안에 넘치고
타고난 천성 온화하여 복록이 길다
동서양에 걸친 학문 축적이 많고
아! 그대 가는 곳마다 저절로 향기가 남네

보고서를 냈어요.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학교로 돌아왔고 실패한 게 맞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인터넷에서의 책임 확립이라는 원칙에 끝물했으니 세우는 방법엔 소홀했지요.

<‘평생의 원칙’을 둘러싼 시련은 2004년 6월, 그가 이끌던 언론학회가 이른바 ‘탄핵 방송 보고서’를 펴낼 때부터 시작됐다.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보고서의 결론은 못입에 오르내렸다>

-진보 진영에선 “보수정권의 ‘언론 장악’에 악용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당리당락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1980~90년대 진보 진영이 앞장 서서 확립한 원칙이지

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데 기여했어요. 민주화 과정에서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가 어렵게 세운 원칙을, 그 최대 수혜자가 폐기 해야 할 낡은 개념이라고 폄하하는 격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보수라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비판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진보적 학자로 알려졌는데요.

▶좌파적 비판의식은 일종의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엄혹한 시대에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념의 변질과 공산권의 붕괴를 지켜봤어요. 오늘날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보수·진보라는 단순 기계적인 분류를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비판의식은 문제 있는 곳에 가해져야 하는 균형감각을 필요로 하지요.



KBS-TV프로그램 ‘책을 말하다’에서 초대 MC로 기용됐던 박명진 교수가 외국 저술가와 그가 저술한 저서에 관해서 대담 중이다.

논 단

노벨문학상 & 화제의 동문

아시안 노벨문학상 소감 <>

행운으로 노벨문학상 일게된 일본



김일훈(의대 57년졸)

동양문학을 서양에 전달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은 상호간 '언어와 문화의 높은 벽'인데, 일본과 중국은 이 난관을 무난히 극복한 예외적인 나라다. 일본은 영어권 천재들의 도움이라는 복과 행운으로, 중국혈통인은 천재적 어학실력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내게 됐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일본이 자랑하는 옛날 역사이야기에 "신(神)이 보낸 바람가미가제(神風)가 일본열도를 외국침략으로부터 보호했다"고 하듯, 현대일본도 우리 한국인에겐 아주 알미를 정도로 여러 모로 '행운'이라는 복을 타고난 나라다.

우리의 불행 '한국전쟁'을 계기로 오늘 날 경제대국의 기반을 구축했던 일본은 노벨문학상에 있어서도 미국인 천재작가자 일본문학 전문가들 덕분에 노벨문학상의 행운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소개해 본다. 일본문학은 동양적 신비성이라는 점에서 일본 개화기부터 구미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세계 첫 장편 연애소설이자 고대 일본문학의 압권이라 할 '겐지(源氏)이야기'는 1천년 전 일본의 귀족 여성 천재작가 무라사키(紫式部)가 쓴 고전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20세기 초반에 이미 영국의

Arthur Waley교수에 의해 영어번역판이 나왔고 그 후 미국의 Seidensticker교수가 보완한 번역판이 세계에 널리 보급돼 1,100페이지의 이 책을 필자도 갖고 있을 정도다<사진 참조>. 아시다시피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하면서 선진국 모방을 철두철미하게 해온 나라로 특기할 일은 유명작가들은 거의 전적으로 고향이다.

우선 일본서 공인된 명치시대 '3대 문호'의 예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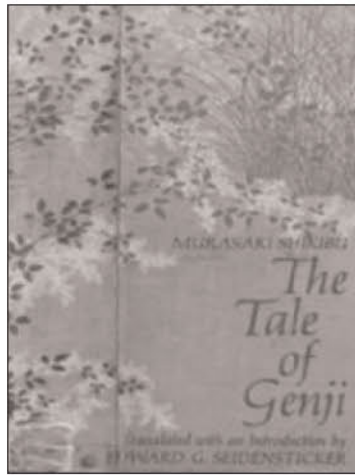
▶나쓰메(夏目漱石)=동경대 영문과출신으로 영국 유학경력이 있으며, 개화기 일본서 첫 손꼽는 작가다.

▶모리(森鷗外)=동경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육군의무감까지 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며, 위의 '나쓰메'와 더불어 명치시대 문호의 쌍벽을 이루는 천재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유학 학력이 있으며 파우스트(괴테 작)의 일본어 번역판 출판도 했다.

▶쓰보우찌(坪内逍遙)=동경대 경제과 출신의 대문호이자 번역가며, 1928년엔 '섹스피어 전집' 40권의 번역을 완성한 석학이다.

현대 작가로는 ▶1968년도 노벨상 수상작가 가와바타(川端康成, 1899년생~1972년 자살)는 동경대 영문과출신, ▶1994년도 수상작가 오에(大江健三郎, 1935년생~생존)는 동경대 불문과 출신이고 보면, 이들 작품에도 서구적인 색채가 농후해 노벨문학상 심사에서 어려움을 극복했을 가능성도 컸을 것이다.

참고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자주 거명된 작가들 역시 고향학자들이며, 40대에 요절(자살)한 미시마(三島由紀夫)는 동경대 법학부 졸업, 다니자키(谷崎潤一郎)는 동경대 국문과출업, 아베(安部公房)는 동경대의학부 중퇴, 이노우에(井上靖)는 교토대학 철학과 졸업, 그리고 무라카미(村上春樹)는 와세다 대학 연극과 출신이다.



몇 사진은 소설 '겐지(源氏) 이야기'의 영문 번역판. 인물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와바타(川端康成)·오에(大江健三郎), Donald Keene·Edward Seidensticker.

그러나 일본의 문학상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문학에 심취한 '저명한 미국작가들'이 일본문학 전문가가 돼 그들이 직접 일본명작을 영문번역해서 서양세계에 적극 소개한 결과며, 일본문학은 그들 덕분에 세계에 널리 보급됐다. 일본인 두 사람의 노벨문학상 수상엔 다음의 미국작가 3명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들 모두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일본문학 전문가들이다.

▶Edward Seidensticker(1921~2007)=대학에서 일본어를 학습한 다음 하버드와 동경대학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했다. 그 후 일본대학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거쳐, 콜롬비아대학에서 일본문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5년 은퇴 후 명예교수로 저작활동을 계속했다.

고대와 근대 일본문화와 문학을 소개한 책(영어판)들과, 앞에 언급한 '겐지(源氏)이야기'를 비롯해서 그가 번역한 일본작품을 합치면 40권이 된다. 그 중에는 노벨수상작 '가와바타'의 저서 6권이 있으며, '가와바타'와는 호형호제하는 절친한 사이다.

특히 '가와바타'의 대표작 '설국(雪國 Snow Country)'의 번역은 노벨상 수상에 크게



공헌했으며, 실제 가와바타 자신도 "내 노벨상의 절반은 Seidensticker교수의 몫이다"고 말하며, 노벨상금의 절반씩을 그와 나누어 가진 이야기는 유명하다.

가와바타 이외에 그가 번역한 일본소설은 '미시마' 작품 1개와 '다니자키' 작품 3개 그리고 '이노우에' 작품 1개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앞서 열거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가들이다.

▶Donald Keene(1922~)=콜롬비아대학 문과생 때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흥미 갖게 돼 하버드를 비롯해 일본 교토대학 등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했고, 1955년부터 콜롬비아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그곳에서 Seidensticker와 동료가 돼 저작활동을 하며 현재 명예교수다.

그의 일본에 관한 저작물은 영어로 쓴 25권에 더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그 자신이 직접 일본어로 쓴 책 30권이 출판돼 있으며, 그런 면에서 일본인에겐 Seidensticker보다 더 잘 알려진 유명작가다.

특히 일본어판과 영어판의 2개 언어로 쓴 18권의 '일본문학사'는 '근세', '근대-현대', '고대-중세'의 3부로 구성된 전집이다.

그의 저서에 자세히 소개된 일본작가들 가운데, 훗날의 노



벨문학상 수상자와 후보자 전원이 포함돼 있음을 알린다. 이러한 업적으로 그는 '미국 문예평론가상'과 '일본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한때 미국 펜클럽 회장을 역임했고, 'Donald Keene 일본문화센터'의 설립자가 됐다. 그래서 그는 일본과 미국문화의 가교역을 하는, 가장 잘 알려진 국제적 인물이다.

▶John Nathan(1940~)=대학생 때 일본과 일본어에 흥미를 가졌으며 하버드대학 졸업 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동경대학에 입학해 일본문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살한 천재작가 '미시마'와 한때 친해 '미시마 전기(Mishima: A Biography)'를 출판했고, 그의 소설 1개 번역판도 냈다. 그런데 Nathan은 특히 오에(大江健三郎)작품에 대해 후배 그의 여러 영문 번역판을 출판했고, 이것이 '오에'의 노벨상수상에 공헌했다고 믿어진다. 1994년 '오에'의 노벨상 수상 때는 '오에'에 수행해 스웨덴의 수상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인이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획득한 데는, 지명도 높은 국제적인 미국작가의 후광이 있었음을 알리는 바다.



김명자 동문 서울 동창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6.25때 헤어진 어머니가 동문"

하틀랜드 김명자(식물62)동문이 서울 동창회홈페이지를 통해 6.25 당시 헤어진 모친(왼쪽사진)이 동문임을 확인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동문은 서울 동창회에 다음과 같은 감사의 e메일을 보냈다.



김동문 서울 동창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정성껏 보내주신 어머니 기록물을 받았습니. 졸업증명서 2통, 학적부 사본 1부, 졸업대장 사본 1부. 그 기록을 찾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1930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

한 어머니 서성선 동문의 기록물을 찾아 보내준 데 대한 감사의 편지였다.

김 동문은 을 초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9세 때 6·25전쟁이 터져 어머니와 헤어진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먼 친척으로부터 어머니가 경성사범을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홈페이지(www.snua.or.kr) '동문 검색' 서비스를 통해 모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300014000000 서성선 경성사범학교 여자연습과 1930년' 화면을 보며 김 동문은 흥분에 사로잡혔다. 졸업장 카피 등 무언가 기념될만한 것을 가지고 싶었다.

"지난 1990년 어머니와 함께 헤어졌던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4명 모두 북한에 있더군요. 저는 6·25때 아버지를 따라 황해도 사리원 이모댁으로 피신했죠. 형제들로부터 어머니가 1951년 폭격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4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였는데 올 초 어머니가 경성사범을 졸업해 학교 선생님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기에 경성사범 시절 기록물이라도 갖고 싶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오래된 기록물을 찾느라 애써주신 김하석 전 특임부총장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김 동문은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끝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왔다.

경남여교와 모교 졸업 후 1967년 도미해 남편 오태요(의

대 56)동문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형제와 친척 60여 명을 돕고 있다. 지난 5월에도 평양에서 화폐개혁후 어려움에 처한 친척들에게 금품을 전달해왔다.

"이들을 돕는 게 저에게는 크나큰 십자가지만 언젠가 어머니 앞에 가는 날 형제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노라고 몇몇하게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도 저를 칭찬해 주시죠."

김 동문의 아들은 LA에서 뮤추얼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어머니 뜻에 따라 매년 모교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미주 의대동창회에도 기금을 출연해 아버지와 장인 김건인(의대 59)동문의 이름을 딴 특직장학금을 설립하기도 했다.

논단

칼럼

‘한미 박물관’ 건립은 우리의 책임



조동준(의대 57)

어릴 적 본 경주 박물관은 나에게 박물관의 첫 추억이다. 신라시대 토기, 고려시대의 청자, 그리고 조선백자 등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유산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기하고, 반가운 일이다. 미국 이주 후 뉴욕시의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보스턴의 케네디 대통령 기념박물관, 시카고의 현대미술 박물관, 하와이 진주만 습격으로 세워진 에리조나 전함의 전쟁 기념관, 그리고 LA의 Getty 미술박물관 등 많은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어느 곳이든 그 시대의 역사, 문화 및 유산을 보존하면서 후손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곳이 박물관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어느 도시든 방문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바로 그곳의 박물관을 찾아 그 곳의 문화를 엿보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

이곳 LA만 해도 LA 카운티 미술박물관, 닉슨대통령 출생지와 도서관, 유대인 대학살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Tolerance 박물관,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기념박물관 등 많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박물관은 LA의 Little Tokyo에 세워진 일미 박물관(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이다.

1982년 첫 모금운동이 시작될 때, 나도 창립멤버로 참가해서 이제 이 박물관의 창립회원으로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한국서 손님이 오면, 이웃나라의 박물관이지만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번 안내한 적이 있다.

이 땅에 어떻게 뿌리내린 일본인 후손들의 이민역사와 일본문화의 전미 홍보부로 등장한 이곳은 전혀 일본정부의 도움없이, 미주 후손들 전부가 뭉쳐서 세운 유일한 일본 National Museum 이자, 그들의 자존심의 상징이다.

1950년대까지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투표권도 못가진 이민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 뿌리내린 그들의 모습은 장하기만 하다.

모금운동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이루어졌기에 더욱 인상적이었으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1997년 종설개관이 있었는데, 개관에 쓰여진 돈은 4,500만

달러가 소요됐으며, 회원과 모금에 참가한 사람들이 4만5천 명이라니, 이런 큰 성공적인 사업은 이들 이민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 같다.

다민족이 사는 미국에서 자기나라의 고유한 박물관을 가졌다는 것은 그 민족의 자존심의 큰 상징이다.

한 예로 1950년대에 2개 뿐이었던 유대인 박물관이 1990년에는 미전역에 35개나 된다고 한다.

우리 한국 이민자도 이제는 이 땅에 하나쯤 박물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한국 이민자 및 2세대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

이 일은 미주 전체의 한국 후손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는 될 일이 아니니,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와이 사탕수수밭 선조로 시작해서, 100년이 넘는 우리 이민역사는 200년 조금 넘는 미국역사에,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이룬, 미국역사에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짧은 역사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봉건적인 한국가정과 무섭게 변하는 미주류사회의 전혀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 가면서, 미국인이라 해야 할지, 한국인이라 해야 할지 혼돈하고 있다.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의 10대 젊은 세대와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의 2세대, 그리고 17만이나 된다는 한국계 입양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합해서, 뿌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박물관이 있다면, 뿌리 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또 재미 한국 후손들의 문화적 계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우리의 한인 이민박물관이 있다면 미전역 한인사회로부터는 물론, 미주류사회에서도 크게 각광받으리라 믿는다.

어제는 8.15광복 65주년 기념일인 동시에, 치욕적 한일 병합 100주년이라니, 과거의 깨어진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미주 한국 이민 박물관 건립은 이곳에 사는 우리들 몫이라 생각된다. 미국땅에 우리 문화의 뿌리를

내려야 하며, 우리의 긍지를 심어야 하며, 한국 혼을 미주에 심어야겠다.

과거는 우리의 유산이요, 현재는 우리의 책임이요, 미래는 우리의 도전이란 말이 있다. 우리 박물관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요, 후손들의 도전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모금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하와이 주 대법원장 문대양 씨, 골프계 혜성 박세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Sarah Chang, 금년 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 수상자 김연아, 그리고 UN Secretary-General 만기문, 등등 미국땅에서, 한국의 혼을 빛내는 우리 후손들이 너무나 많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제는 미국땅에서, 한국이민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인데, 한편 도리켜 보면, 왜 그런 일이, 시작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해서다.

사실은 동포사회에서 이런 성금을 보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신용을 그동안 비축한 신용과 능력을 갖춘 봉사기관도 찾기 힘든 일이다.

1992년 즉 18년 전 LA Korea

Community에서 원로 건축가 데이비드 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 따님 수잔 안, 김영옥 예비역 대령, 그리고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 수상자 Dr. Sammy Lee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이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김영옥 대령은 세상을 떠나고 이사장이던 데이비드 현은 양로원에서 치매로 투병하고 있으며 이름만 오랫동안 이어오던 그 기관은 찾기가 힘들다. 나도 당시 창립 이사로 첫 모금위원장으로 일했다.

한국 후손이 많이 사는 LA나 New York 같은 곳에 한미 이민 박물관이 세워지는 모습을 그리던 것은 미주 후손들의 꿈이며 도전이었는데 왜 아직 한인 사회에서는 시작도 되지 않는지, 내내 궁금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한국 후손이 전부 동참해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10년, 20년 후라도 미국 이민사회에 한국 이민박물관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늑대 같은 남편, 까마귀 같은 아들”

김홍목
문리대 사회학과

“늑대같은 남자를 남편감으로 골라라.”

어떤 동물 연구가의 역설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 사랑하고 ▶자신의 암컷과 새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우며 ▶사냥을 하면 암컷과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양보하고 ▶독립한 후에도 종종 부모를 찾아와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와는 사뭇 다른 본성입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태운 남편 ▶자신의 본드 흡입 사실을 신고한 어머니를 숨지게 한 아들 ▶이 종격투기의 발차기 희생양으로 일품 살 어린이를 로리한 고교생 ▶결혼을 반대한다고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남편 ▶협박했다고 동료 여학생을 타살한 뒤 피까지 뿜은 10대 ▶힘들게 낳아 놓으면 군대 가서 죽이는 거 배워 오는 청년들..... 오나가나 ‘늑대 같은 남자’ 투성이니까요.

까마귀도 양면설에서 배움을 수 없습니다.

까마귀는 부리서부터 발톱까지 온통 벼랑인 데다,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 사람의 눈 밖에 나는 흉조(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의 대명사였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는 속담처럼 까마귀가 끼는 말조차 업신여김을 당했습

니다.

‘오합지졸(烏合之卒)’ ‘오비리락(烏飛梨落)’ 같은 성어(成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마귀가 실은 지극한 효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반포지효(反哺之孝)의 어원이 바로 효조(孝鳥)인 까마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백락천(白樂天)은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어미를 여윈 자조(慈鳥:까마귀의 별칭) 까악까악 슬피도 운다.../ 어미가 깃들었던 나무에서 한밤에 우는 그 소리엔 / 아마도 호소할 게 있나 보다 못 다한 반포(反哺)의 마음울...”

또는(圖騰) 정몽주(鄭夢周)의 어머니는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려는 일념에서 ‘까마귀 노는 골에 백토야 가지 마라...’는 시조를 지었습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이직(李穡)의 시조는 정반대입니다.

‘까마귀 잡다 하고 백토야 옷지 마라 / 길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소나 / 길 회고 속 검은이는 너 뿐인가 하노라’

사람을 평가할 때 길모양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초가 늑대, 효자 까마귀 못지않게 인간사회에도 감쪽 놀랄 역설·가설·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중국에서는 2,500년이나 된 도덕관념이 한 때 전도되기도 했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이 가설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중력은 없다”는 새로운 시각이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앞으로 10년을 장식할 트렌드 10선’ 기사에서 엘리트가 쇠퇴하고 학교 중퇴자의 시대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과거 10년간 미국 의회, GM, 월가, 주류 미디어 등 주요 기관들의 위상 추락이 운영자인 엘리트의 실패에 기인했다는 주장입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무장한 대중이 대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35년 이내에 일부일처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5년 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유와 신장, 수명 연장으로 한 사람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의 발달로 성·사랑·출산의 연계 고리도 느슨해져 남녀가 각각 동시에 여러 명의 연인을 갖고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 이후에.

비만(肥滿)도 감염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자들은 1948년부터 계속되어 온 프래밍햄 지역 주민 연구를 토대로, 뚱뚱한 친구가 있으면 다른 친구가 비만일 확률이 57% 더 높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친구의 친구(20%), 친구의 친구의 친구(10%)가 비만일 때도 통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만이 개인의 유전적 성향이나 생활습관 때문이라는 상식을 뒤집은 결론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도시나 자연이 스스로 빚은 절경도 사라질 것이 수두룩합니다.

올 봄 뉴스위크는 지구온난화로 없어지거나 지형이 크게 바뀔 100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케이프타운(해수면 상승), 도쿄(열섬현상), 베이징(사막화)은 기어 속에만 남게 될 도시입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 파나마 운하, 노르웨이의 튠드라 지역,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도 같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언제 인지는 모르지만.

왜 뜬금없는 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느냐고요?

과학에 근거했든 아니든 정설이나 진리로 믿었던 사실들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가 궁금해서입니다.

“민심이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저울질하는 정치인, 엘리트 자식 만들겠다고 조기유학 보내는 부모, “4대강 개발을 해야 한다. 안 된다”고 악을 쓰는 꼴들... 모두가 허황해 보입니다.

“몽고반점은 중국집 이름이다” “으악새는 새의 한 종류다” “청와대는 중국에 있는 대학이다...”

뻥뻥 우기는 고집은 한 번 웃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릴 뼈를 깎는 자성, 뒤로 호박씨 까는 결사반대, 너 죽고 나 살자는 지역이기(利己)주의, 벌집만 찌르고 다니는 이념 투쟁,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거드름...

이토록 아등바등 사는 사람이 반드시 저자식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늑대나 지성으로 부모를 공양하는 까마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 집

이문열 동문 인터뷰



“보이는 데만 치중은 금물”

한국 문학의 거두 이문열 동문의 강연회가 지난 8월 LA 한국 교육원에서 열렸다. 행사장 로비에서 열린 북 사인회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이문열 동문은 첫날 강연회에서 ‘시대와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문학과 창작에 대한 개인의 철학을 설파했다. 이 동문은 이어 ‘나의 삶 나의 문학’ ‘우리 시대의 새로운 리바이어던’을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 동문의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인터뷰 내용을 전제한다.

이문열 동문은 지난 1979년 ‘사람의 아들’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베스트 셀러 작가다. 100만부 넘게 팔린 소설만 5권이 넘고 ‘삼국지’는 1천700만부가 팔렸으며, 수집권의 작품이 18개국에 번역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보수 지식인으로 신문칼럼, 발언 등이 진보 측과 충돌하면서 ‘시대와 불화’가 시작돼 그의 발언은 바로 뉴스가 될 정도로 논란의 폭탄에 서 있다.

이른바 ‘책 장례식’을 당한 후 지난 10년 간 진보측과 안티들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 중 그와 하룻밤을 같이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가 큰 화제를 일으켰다.

-신작 집필로 바쁘신데.

▶7월초부터 서울 중앙일보에 ‘리투아니아 여인’을 쓰고 있다. 안중근 열사를 다룬 작품 ‘불멸’을 출간한 후 처음 작품인데 역시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활력이 생긴다.

-어떤 내용인가.

▶다국적 여성을 주인공으로 21세기의 정체성을 다룬 소설이다. 리투아니아(발트해 연안의 소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자란 어머니와 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의 할머니는 1940년 리투아니아가 소련에 병합될 때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해 이민의 삶을 살게 됐다. 주인공은 대학에서 민속음악을 공부하던 중 한인 남성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면서 펼쳐지는 자

아와 찢줄 그리고 전통과 문화 삶에 관한 이야기다.

-집필 전 취재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인데 혹시 리투아니아에도 가보았는가?

▶보통 장편을 쓰기 전 자료 수집과 조사만 2-3년 정도 걸릴 정도로 철저히 해 물론 현장에도 간다. 조사만 철저히 해 놓으면 장편 한 권 쓰는데 1년이 넘지 않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투아니아에는 마음만 앞섰고 가볼 기회가 없었다.

-선생님의 사람 이야기는 깊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 소설이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이야기들 하는데 사람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갈 요소



그나마 만남의 시간이 생기면 이들의 조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학생들은 문학 이야기만 물으려고 해 살필 겨를이 없었다.

-4년전 버클리에서 계실 때 LA에 잠시 내려와 한류에 대해 인터뷰 한 적이 있다. 그때 대부분 한인들이 한류에 대해 개념조차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는가?

▶세계적으로 한국이 많이 알려졌다는 것 한국의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한류로 풀이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역사와 사상, 철학과 문화, 그리고 전통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사상 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 이들을 움직여야 한다. 그나마 요즘은 정통에서 벗어난 지역적인 것들이 너무나 설쳐 오히려 한류가 오류 속

판매한 작가로 알려졌는데

▶100만부 이상 팔린 소설만 5권이다. 독자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기는 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실 계획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천착하지 않는다. 그때 그때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문득 주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리투아니아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모델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어떠한 주제라도 마음을 당기는 것이 있다면 써야한다. 당분간은 ‘리투아니아 여인’에만 신경을 쓸 계획이다.

-한국의 수많은 작가 중에서 유독 발언마다 논란이 된다.

▶너무 호전적인지 모르겠는데, 순수한 관심도 있지만 집단적 이용이 있다.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항상 비틀어지거나, 과장되거나 확대되게, 나한테 좋지 않은 내용으로 확대되고 변해서 나온다는 것이다.

-누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나의 안티세력이다. 나는 10년 가까이 아직도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책을 한 권 내도 될 만큼 내 발언이 원래 뜻과 다르게, 회한하게 바뀌어 사람을 괴물로 만들곤 했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악의가 가신 것 같지는 않다.

-문학인으로서 정치 주변에 가까이 가서 그런 것 아닌가.

▶지난 10년간 집중적으로 덮여찍은 것이 그것이다. 나는 33년간 작가로서 80권의 책을

로 적혀 있다.

-반미에 관해 많은 한국인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반미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원하고, 동시에 미주 동포를 무시한다.

▶맞다. 한국의 반미는 굉장히 이중적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나쁘게 말하면 교활해졌고 좋게 말하면 세련돼졌다. 행동도 그렇고, 가치판단의 잣대가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과 전달방법이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속도가 빠르고, 이합집산이 빠르고,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힘이 빠르다. 이를 이용해 ‘민족주의 성감대’를 자극하면 어떤 젊은이들은 파블로프의 개가 반응하듯 무조건 따라간다. 이것을 필요할 때 스포츠 국수주의에 적용하기도 하고 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라지만 아직도 미국이 세계의 중심축이다. 미국은 지금 최초의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나.

▶글쎄... 그 사람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미주동포를 비롯해 해외 한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생각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제 거리는 무의미하고, 같은 시간대에서 한국 소식을 알고 정보를 갖는 것 같다. 그러나 정보라는 게 언제나 굴절되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정보에 대한 시차와 오해가 있다면 풀었으면 좋겠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요즘 젊은 작가들은 어떤가.

▶동인문학상 심사를 위해 매달 7명이 모여서 그 달 나온 작품들을 검토한다. 여기서 후보작을 뽑아 놓았다가 10월에 압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젊은이들의 작품을 읽고 경향을 알게 되는데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 새로운 장르라 하긴 뭐하지만 인터넷 글쓰기의 특별한 흐름을 갖고 있다. 또 실시간 소통 도구들을 보면서 인터넷보다 더 핫한 트위터 글쓰기가 생겨날 수도 있고, 또는 내 짐작밖의 세계가 펼쳐지기도 모르겠다.

-소설가로서 요즘 관심 가는 주제나 화두가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대 해석과 연관된 것이다. 내가 사는 시대를 해석하는 것, 특히 80년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마음에 걸린다. 다른 하나는 나이 먹고 늙어가는 만큼 그것이 없던 글을 쓰고 싶다. 그것이 나름의 터득일 수도 있고 축적된 지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던 글, 성숙해진 티가 나는 글을 써봤으면 싶다.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통해 교훈이 있다면.

▶시대가 매체와 연관되는데, 요즘은 보이는 것, 접하기, 표현된 것, 혹은 이미지가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 인식을 지배한다. 옛날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안 보이는 것들이었다. 소중하게 닦아오고 문화 축적해 온 것들은 무시되고, 젊은이들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나치게 세계를 의식해 역사 등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티세력 집중 표적이 돼 아쉬워”

고 중심은 자아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는 우리가 종래 인식하고 있었던 ‘정체성’이라는 관념이 변화돼 있다. 현재의 정체성은 피와 땅을 통해서 구현되지 않고 있다. 사랑도 그렇다. 아직 나 자신도 이런 것이 21세기의 정체성이다 하고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어 그저 일종의 혼란스러움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하여간 소설 속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자아를 형성해 가는지를 써 내려갈 것이다.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한국도 혼혈이 흔한데.

▶한국에도 어떤 지역의 경우 어린이 7명중 한 명이 혼혈이라 할 정도로 타민족의 유입이 많아졌다. 이런 다국적 시대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는가’라는 주제는 중요하다.

-UC 버클리와 하버드 대학에서 머물며 연구하셨는데 당시 한인 학생들의 정체성을 살피실 기회가 있었는가.

▶버클리와 하버드에서 체류 작가로 있었기 때문에 한인 학생들과 생각을 나눌 정도로 함께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에 파묻혀 있는 느낌이다. 잘못된 것들이 한국의 것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어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세계속의 한국문학은 어떤가.

▶많은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번역도 많이 돼 글로벌라이즈화 되고 있다는 느낌은 있다. 그러나 간혹 작가들이 지나치게 세계를 의식해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글을 쓴다는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작품을 쓴다거나 틀린 것을 맞다고 쓰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역사 왜곡은 안된다. 작가들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독자를 의식해야 한다.

-내놓는 소설마다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이라면.

▶조금 전 이야기 했듯 독자를 의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책 한 권 살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기대를 한다. 재미를 얻든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싶은.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독자들의 이 기대를 만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나의 경우 글을 쓸 때 독자들의 마음을 먼저 염두에 둔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소설을

쓰고 활동과 상벌 관계도 많았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작가로서의 나는 되도록 지워버리고 7년 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만 항상 제일 앞에 나와 있다. 그 10년간 책을 열댓권을 썼는데 그건 다 없애버리고...

-정치 주변에 안가면 되지않나.

▶그런데 그게 약이 오른 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특히 1980-90년대에는 문학이 정치 중심으로 이뤄졌다. 소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라 했고, 참여하는 것이 문학의 제1대이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스캔들인 거다.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 책임의 인과관계가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연관된 거라면 2003년 1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75일 동안 직접적인 정치인도 아니고, 공천심사위원 15명 중 1명으로 일한 것 뿐인데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확대 재생산하며 정치했다고 하는 것이다. 한번 낙인찍히면 교정이 안 된다. 나는 구체받을 수 없는 천미주의자, 아니면 격렬한 반공주의자

광복절 65주년에 감상한 ‘투란도트’

이영일(한중문화협회 총재,
전 국회의원)

광복절 65주년을 기념하는 지난 8월25일 서울 경동교회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는 아내와 함께 오후 3시 서울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초연하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감상했다.

작년 가을부터 우리 내외는 좋은 오페라를 빠짐없이 감상하는 행운을 안았다.

경동교회 성가대원 들 중 오페라 현역 출연진들이 많은 덕분에 때로는 표 판는데 협력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팔아준 표 값보다 훨씬 더 많은 오페라에 초대받게 됐다.

또 예술관련 기획회사를 경영하는 친구가 우리 내외를 음악이나 오페라 예술에 상당한 이해심과 소양을 가진 것으로 과대평가한 탓인지 자기에게 오는 표를 많이 할애해주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돈 카를로, 마농 레스코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칼렌, 라 트라비아타를, 그리고 이번에는 오페라하우스에 딸린 소형극장 토월극장에서 투란도트를 보게 된 것이다.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새로 준공된 광화문 앞에서 거행되는 기념행사에에도 서랍에 넣어둔 홍조 근정훈장을 꺼내 가슴에 달고 참가할까도 생각했다.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실린 설의식 선생의 ‘힐러짓는 광화문’의 기억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 일요일이 광복절인 관계로 교회에서 경동교회를 찾았던 김재준 목사님 작사의 찬송 582장 ‘깊은 밤 어둠에 잠겨’를 힘차게 불렀고 또 예배말미에 ‘흠 다시 만져 보자’를 리드로 하는 광복절 노래도 눈시를 불렀는 감동 속에서 따라 불렀기 때문에 내 나름의 기념식은 끝난 셈이었다.

그래서 우리 내외는 광화문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투란도트를 감상하게 되었다.

그간 푸치니의 오페라는 여러 편을 보았고 투란도트도 수년 전 테너 임용균이 타타르의 왕자 칼라프 역으로 나올 때 본 일이 있지만 중국을 무대로 한 작품을 다시 보고 싶은 욕심에

서 예술의전당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푸치니는 일본을 소재로 나비 부인을 그려 일본 게이샤를 서양에 소개했고 중국을 소재로 한 것으로는 처음이고 마지막 작품이 투란도트였다.

그러나 투란도트는 작품을 통한 중국문화의 중언이라기보다는 중동(中東)식의 천일야화를 중국 이야기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문화의 지역성이 뚜렷하지 않고 주제곡이나 변주곡이 모두 푸치니 가곡에서 흔히 듣는 음색들로 크게 새로울 것이 없었다.

적어도 동양적 선율을 느낄 수 없었다는 데 아쉬움이 남았다.

다만 이날 공연에서는 푸리마 돈나로 나온 소프라노 조영주 씨보다는 조연으로 나온 소프라노 노정애(칼리파를 사모하는 애인 ‘류’)의 아리아가 음악성에서 훨씬 감동적이고 절실한 느낌을 잘 살려내 주었다.

막이 내린 후 연기자들이 무대로 인사차 나오는 장면에서 류를 향한 박수의 강도가 매우 길고 큰 것으로 미루어 내 느낌이 옳았던 것 같다.

나는 이번 여러 편의 오페라를 보면서 한국오페라의 수준이 역시 GDP랭킹 세계 13~15위만 큼 올랐음에 놀랐다.

1958년 대학에 입학해서 같은 캠퍼스의 수학과 김치호(4.19 당일 경무대 앞에서 저격당해 사망)군과 함께 당시 병동의 시공관에서 맨 처음 감상했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나 레온 카발로의 기극 파리아치를 볼 때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기획, 연출, 무대, 성악수준이었다.

왜 한류(韓流)가 세계도처에서 평가받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나라에서 한류가 받는 것만큼 칭찬받을 전망이 전혀 없는 정치권에서 인생의 주요시기를 살았다.

GDP가 아무리 높아져도 한국 정치의 수준은 GDP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정치문화를 떠나서 성립하기가 힘들고 식민지를 제압한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잘될 수 없는 소위 식민지근성이 청산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더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일제 식민지 기간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 역사의 길이와

비교해서 35년이라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우리 민족에게는 못치고 못하고 분열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식민지근성이라는 국가발전을 저해할 큰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아직도 우리정치는 이 함정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여기에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반목과 갈등이 내면화되는 가운데 쌓인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기 보다는 이것을 이용하고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함정은 결코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뒤쳐져 있다고 해서 다른 분야가 정체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가 세계와 흐름을 같이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에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불행한 일이지만 정치의 기능과 역할이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교육국경, 경제국경, 문화국경이 무너져 가는 세계사의 큰 흐름을 조망할 때 정치적 국경의 테두리 속으로 역할이 줄어들어 정치에 너무 지나친 기대도 가질 필요도 없고 환멸도 가질 필요가 없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개탄할 필요도, 잘 뽑았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 다 지나가는 하나의 절차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GDP 수준을 밀도는 정치 세대교체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정비되어 갈 것이다. 이점에서 문화의 선진화는 마침내 정치선진화의 중요하고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GDP를 밀도는 수준의 정치를 연출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보다는 토월극장에서 수준 높은 오페라를 감상하면서 광복절을 보낸 것이 더 값지다는 생각이 아직도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 비록 아이러니이지만 말이다.

<이영일> 1939년생/서울대 정치학과/동양통신 기자, 기독교방송(CBS) 해설위원, 통일원 상임연구위원,대변인, 교육홍보실장, 통일 연수원장 역임/전 3선 국회의원/ 현재 한중문화협회 총재,

8.15 해방과 통일

윤광현(공대 78)
Andover MA거주)

올해는 지난 1910년 8월29일 경술국치(한일강제병합) 100주년 되는 해며 1945년 8월15일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65주년 되는 해다.

36년간의 일본통치였고 이제 해방등이는 벌써 66세가 됐다. 1910년 한반도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비롯한 주권과 나라의 독립성을 빼앗겼다.

일본은 미국과 1905년 9월5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른바 평화협정이라며 미국의 중재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조선을 식민지화 했다.

밀약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미국이 인정하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구한 말 집안싸움에 빠져 허우적대는 한국정부를 국제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맺은 후 40년만에 바로 그 당사자인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한국은 해방이 되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독립하지 못했기에 당하는 설움이 민족분단으로 나타났다.

해방 후 미국은 3년간 남쪽을 군정으로 다스렸다. 그 후 일어난 6.25 한국전쟁은 북한이 도발한 전쟁이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끝까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전세가 불리해진 북한이 소련을 통해 휴전을 제의하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휴전에 조인해 지금까지 이르렀던 것 뿐이다.

강국은 약소국의 약함을 틈타 침범하여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채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세계여론이 있으므로 은밀하고 또 확실하게 진행된다. 힘없는 나라는 그래서 이래 지레 슬프다.

사람이나 국가나 힘을 키워야 한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다스리는 것은 어찌면 자연법칙일 수 있다. 적자생존의 이치다.

힘이 없어 일본에게 36년간이나 통치를 당한 우리는 3년간의 외세를 등에 업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가 됐지만 이제 남한은 세계 11위의 경제력,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일궈놓았다.

그러나 부끄럽기는 한반도의 허리 갈라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반면 북한의 경제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북한처럼 세계 최하위권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우열을 다투는 G2로 매김되고 있다.

지난 6.29에 체결된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으로 중국은

대만에 경제를 양보하는 대신 경제협력을 기초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공동체 형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지구상에 분단국가로 남은 나라는 한국 뿐이다.

우리의 원수는 이완용도 아니요, 일본인도 아니다. 집안싸움을 하더라도 집 밖을 나가면 일치단결해야 한다. 왜 우리는 어떻게 협박하고 호리명령하고 독하면 남의 신세를 지려하는 사대주의가 만연하는가.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아도 동물사료로 소비확대를 검토할지라도 북을 더욱 압박해 굶주리는 동포들이 고통에 못이겨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이른바 ‘급변사태’를 기다리는 정치논리가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압도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국시는 통일이며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통일이다.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하며 북한이 개혁 개방되도록 도와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의지를 확실히 세우고 통일에 대한 국민통일부터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 반통일 분열주의 세력들은 사상, 이념이 다르다고 지금도 피투성이 대결에 목숨을 걸고 있다.

특히 “한민족은 애시당초 없으며 남북한은 영원히 분단되어야 하며 분단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까지 말하는 이도 있다.

진정한 보수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통일만이 진정한 해방이요, 독립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통일이 되려면 한반도의 통일전략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해 세워 대비해야 하고 동아시아 미래구상을 제시해 통일 한반도가 진정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에 필수적임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는 적극적 통일의교도 벌여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한국이 통일해야 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나 민족은 무한하다. 특정 정권, 특정 정치인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한국’이라는 우리 나라와 ‘한민족’이라는 우리 민족만을 보며 한국인들은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 통일한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제는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외세에만 이익을 주는 대결정책에서 그만 벗어나 실용의 현명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동문 시 감상

파도 소리

박철서(약대 60, 남가주)

시뻘건 햇살이 한 계절의 여름을 아쉬워하며
검푸른 바다 위로 그 열기를 내뿜는다

산명이 같은 파도가 거대한 잠재력을 곡선으로
그어가면서 바닷가 바위 위에 도전해온다

오르릉 쾅, 오르릉 쾅 처덜췌 췌아아-
오르릉 쾅, 오르릉 쾅 처덜췌 췌아아-

파도의 용암같은 불되전의 외침 그것은 검푸른
바다 속에 꿈틀대는 정중동의 생리

파도의 포효가 하얀 포말을 낳고 태초의 원시
로 우리를 이끌어 가면 모든 것은 일순간 순수를
머금고 고요해진다.

마알간 수채화를 수면 위에 그리면서 우주의
한 점리가 바다 위에 펼쳐진다

<2010년 어느 여름 날 남가주
El Matador State Beach에서>

특 집

경술국치 한일병합 100년

한일병합의 배경



조봉완(법대 53, Ph.D)

지난 100년은 한반도와 그곳의 주재민에게 전례 없는 격동의 1세기였다. 식민지에서 해방했고, 독립도 했으나, 한반도는 분단된지 65년이 됐다. 남한은 초기 여러 고난을 겪은 후 세계 12위 부국이 돼 금년 11월에 세계 20강국회의를 주최하게 됐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반대로, 사회 공산주의 독재 정권하의 북한은 한국의 반 밖에 안되는 국민들을 기근상태에 처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실로, 격변의 1세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0년의 역사를 한 지면에 쓴다는 것이 언어도단인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돼 있고, 모교 동문회보 8월호에 이미 -한일 병합에 대해 2-3 편의 글이 나와 있으므로 필자는 한일 병합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합병 전과 당시의 세계적 이념, 국제관계, 또 극동의 국제 관계를 살펴 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전에, 동문 독자의 이해를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선·조선왕국·조선 민족’이라는 말을 해방 전의 역사를 언급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정확한 서술이기 때문이다. 해방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에서 ‘조선’과 ‘조선민족’이라는 말을 전용함으로써, 남한에서는 그 어휘를 쓰는 사람을 좌익, 아니면 공산당이라 해 한 때는 신변에 위협을 초래했던 무서운 말들이다. 본인이 작년 가을 영문으로 본 회보에 실었던 미군정에 대한 논문에 대해 일부 독자들이 좌익 경향이 있느니, 편견이 있느니, 운운 해서 미리 말해 두고 싶다. 1910년의 한일 병합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해 8월 29일 일본 정부가 병합을 선언했을 때는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야심은 37년이나 걸려 성장한 괴물이었다. 일찌기 1873년 ‘세이장론(征韓論)’을 제시해 해제된 옛 사무라이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이용해 조선왕국의 침략을 기도했던 것이다. 그 2년 후 서해안 측량을 핑계로 일본군함 운양함이 조선왕국 영해 내로 침범하고, 강화도 해안에 와서는 너무 가까이

들어와 조선 군대가 대포를 쏘았다는 핑계로, 다음 해인 1876년 2월 군함 3척을 보내 강제로 강화(개항)조약을 맺게 했다. 이 조약의 제1장은 조선왕국이 일본과 다른 ‘주권을 소지한 독립국이다’라고 선언했다. 고종왕을 비롯한 조정 중신들은 일시간 기뻐했다. 그러나 그 구절의 진의를 알게 된 후에는 근심이 깊었다. 왜냐하면, 이 선포는 틀림없이 조선 왕조가 중국과 수세기에 걸친 종속관계를 단절할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는 1636-37년 병자호란 이후로 청국을 사대국으로 자인, 연중 수차 사신을 청국에 파견해 공물을 바치고, 왕실과 국내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신, 조선왕국이 외침을 당했을 때는 청국에서 원병을 보낸다는 국제적인 거래였다. 종속관계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의견이 많다. 비굴하고 독립성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비난이다. 그러나 7세기 신라 통일 후의 우리나라 영토 크기와 인구를 중국에 비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는 것이 기적이다.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상들이 종속관계를 구안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각별한 존재는 몇 세기 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조선왕조와 청국간의 종속관계도 조그마한 왕

발기했던 것이다. 동학란이야말로 일본이 학수고대하던 사건이다. 조선반도에 불안정한 폭력적 사건이 일어나면 서로 알린 후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1885년의 청일 양국간 친진조약에 따라 양국이 군대를 조선 반도에 파견했다. 거의 동시인 6월 초 동학당은 자진 해산해 외국 군대가 불필요해져 조선왕조가 군 철수를 요구하니 일본은 동요의 근원을 제거하기 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 고집하며 대폭적인 정치, 사회, 경제 개혁을 강요했다. 조선 조정이 반대하자, 7월 23일 왕궁을 침입해 왕·왕후, 또 세자를 연금시키고, 실정했던 대원군을 허수아비로 앉혀 놓고, 갑오경장을 감행하는 동시에 원병이 가득찬 청국군함 코우상을 충남 아산만에서 침몰 시킴으로써 청국으로 하여금 8월 1일 선전포고를 아니할 수 없는 입장에 놓았다. 청일 전쟁(1894-1895)은 온 세계를 잠에서 깨운 놀라운 전쟁이었다. 첫째로, 그 전쟁은 동양국간에서 처음으로 동양 밖의 세상에 알려진 다름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결과로 끝났다. 난쟁이 섬 나라(왜국)가 그 몇 배가 되는 거대한 대륙의 나라를 짧은 시간에 참패시켰다는 것이다. 또, 이 전쟁은 청 제국 멸망의 첫 단계며, 일본제국 성장의

고종왕은 친일 정부를 숙청하고, 중립과 친러파를 등용했다. 민비는 러시아 세력이 국제적으로 상승한다고 믿고, 러시아의 힘을 빌려 견장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는 일본의 압력을 물리치려 했다. 민비의 착안이 맞는 듯 해,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을 때는 일본세력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훈련대’라는 친일 군대를 해산하는 일반 담아 있었다. 훈련대 해산이 실행되기 전날 밤, 일본군대와 사무라이 로닌(狼人)과 친일 조선인들이 민비의 정적인 대원군을 앞세워, 왕궁을 침범, 왕과 세자를 억류해놓고 진청궁에서 침소에 든 민비를 끌어내 무참하게 시해하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유골을 불살라버렸다. 그런 만행은 역효과를 내, 고종왕은 세자를 데리고 아관파천을 했고, 일본의 조선 반도 점령은 또 하나의 전쟁, 일러 전쟁(1904-05)을 거쳐야 했다. 새로 정치 개혁을 한 일본은 구 정치제도하의 대국 러시아를 패배시켜 온 세계의 선망과 경탄의 대상이 됐다. 일러전쟁 종말 조약은 미국대통령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의 중재로 New Hampshire 주 Portsmouth에서 1905년 9월 맺었으니 이 평화 조약을 포츠머스 조약이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평

화에 공헌했다 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국제 상황은 제국주의의 천국이였다. UN과 같은 국제조직도 없었고 강국이 약소국을 흡수해도, 아무도 말리지는 커녕, 강국을 축하하고 강국중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했던 시대였다. 결국 ‘적자생존’이었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생물학에 기초한 인간 진화론을 인간 사회와 국제 관계에 억지로 적용한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이론이다. 당시에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면 국제간에 힘을 못쓰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제국정책을 시작하지 않고 영토흡수에 야망이 없어 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1898년 제시했던 미국까지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거래했다. 러일전쟁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몇 달전 여름, 미국은 비밀리에 ‘태프트-가쓰라(Taft-Katsura)’ 조약을 맺어 11월 일본이 을사조약을 조선 왕조에게 강요했을 때 못본 척 하고, 알렌(Horace Allen) 미 공사의 애원도 듣지 않고 공사관을 제일 먼저 닫아 버렸다. 그 후로 조선 왕국을 구원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 자국들의 탐욕을 채워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 할 것을 서로 밀약해 상대방의 침략적인 정책에 합의했던 것이다. 을사조약으로 인해 조선 왕국은 일본제국의 보호국이 돼 외교와 군사에 관한 주권을 상실했다. 완전 식민지화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불행하게도 마침, 조선 왕국은 518년이나 지속된 이씨 왕권 지배하에서 지친 나라였다. 200여 년의 당쟁이 지배층의 정력을 파괴적인 방향으로 소비시켰고, 500여년 경화된 주자학 이념은 새로 물려 들어오는 신 사상, 신 무기, 신 세력을 이겨낼 도리가 없었다. 이조 말년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했으나, 기존 정치 제도하에서는 전통의 무게와 구습의 족쇄가 당시의 조선 왕국의 개화 발전이 외국의 침략을 물리칠수 있을 만큼 속히 진전 못했다. 일본보다 최소한 1세대가 지체돼 있었다. 후진국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선 반도의 위치 때문에 왜국에서 개국의 과정도 일본보다 23년이 늦었고, 개국을 강요한 나라도 서양국이 아닌 새로 등장한 일본 제국이었으니 조선 왕국의 개화가 그만큼 늦었고, 그 과정에서 오는 진통도 더 컸다. 당시의 미 대통령 루즈벨트는 제국주의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므로 미개한 인간들은 진보적인 나라의 속국민이 돼 계몽되는 것이 더 좋다 했다. 그는 일본을 좋아해 초속도로 서양적으로 개화한 것을 대견하게 여기며 공공히 칭찬했다. 조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은 미개한 중고시대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로서 빨리 진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했다. 이런 사상은 당시 우세한 이념으로, 영국 작가 키플링(Kipling)은 ‘백인의 짐’이란 유명한 구절도 만들어 내,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고귀한 사명감을 수려하고 정당화했던 것이다. 고종왕은 1907년 헤이그(Hague)에서 열린 국제 법정에 이준열사를 비롯한 밀사 3명을 파견해 세계에 조선왕국의 비운을 호소했으나, 마이동풍격이었다. 이로 인해 고종은 폐위당하고, 그의 아들 순종이 즉위했으나 그는 허수 아비에 불과했다. 왕궁내에서는 여러 구국운동이 있었으나,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늦었다. 최후의 발악으로 일본인 관리들의 암살이 국내외에서 많이 일어났다.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1909년 만주 할빈 기차역에서 안중근 열사가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것이다. 이토의 죽음은 일본의 조선왕국 병합정치에 박차를 놓아, 다음 해인 1910년에 병합을 단행했던 것이다. <9월 1일 에번스턴에서>

“19-20세기 초는 ‘제국주의의 천국’으로 적자생존의 시기,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인간진화론을 인간사회와 국제관계에 억지로 적용케 한 스펜서의 이론적 시대”

국의 생존 방책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존속과 방어를 위해 자칭 하위와 간섭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1876년 강화조약 후 일본은 조선반도를 흡수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을 제국국가일원으로 세계강국의 태세를 갖추고 싶었던 것이다. 1870년대에는 조선 경제에 침입, 1880년에는 경제적 침투를 계속하면서 짧은 양반 개혁가를 통해 조선의 정치 제도 개조(1884년 갑신정변)를 기도했다. 이에 실패하고 청국세력이 제승해 청인 무인 유안시카이(연세개)를 통해 조선 정권을 독점하자 일본은 조선 서민들에게 불리한 경제정책을 강화해 조선 경제에 극단의 위기를 초래했다. 1889년 일어난 ‘콩 수출사건’은 많은 사건중 가장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조선에게 불리한 조건의 조약을 강요했고,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왕조는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 왕조의 정치를 악화시키고 국민생활을 도탄에 빠지게 하며 조선왕족, 특히 민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조선 사회의 극단적인 동요를 기도했다. 드디어 그 사악한 정책이 열매를 맺어 1894년의 동학란이

첫걸음이었다. 조선 왕조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 1200여년간 지속했던 중 대국과 종속관계가 끊어졌다. 조선왕조는 표류된 배가 돼 어디에서, 언제, 누구한테 걸릴지 몰랐다. 청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지체없이 조선 왕국을 손아귀에 넣는 일에 착수했다. 갑신 정변 이후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 등 친일 정치인을 정부 중직에 올려놓고 조선왕조의 외국인, 외국과 연락을 단절시키려 했다. 이제 청 제국이 조선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일본은 의기양양히 조선 반도를 단시내에 삼킬 수 있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예기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대국 러시아 제국의 등장이었다. 러시아 제국의 영토는 유럽에서 극동까지 퍼져 있으므로, 러시아는 늘 극동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러시아는 일본이 전승의 대가로 요동반도를 점령하게 된 것을 염려해 1895년 봄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해 세 강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 요동반도를 중국에 돌려주게 했다. 이것을 ‘삼국중재(Tripartite Intercession)’라 한다. 일본이 황당해하는 틈을 타, 제치있는 민비의 충언에 따라

화에 공헌했다 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국제 상황은 제국주의의 천국이였다. UN과 같은 국제조직도 없었고 강국이 약소국을 흡수해도, 아무도 말리지는 커녕, 강국을 축하하고 강국중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했던 시대였다. 결국 ‘적자생존’이었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생물학에 기초한 인간 진화론을 인간 사회와 국제 관계에 억지로 적용한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이론이다. 당시에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면 국제간에 힘을 못쓰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제국정책을 시작하지 않고 영토흡수에 야망이 없어 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1898년 제시했던 미국까지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거래했다. 러일전쟁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몇 달전 여름, 미국은 비밀리에 ‘태프트-가쓰라(Taft-Katsura)’ 조약을 맺어 11월 일본이 을사조약을 조선 왕조에게 강요했을 때 못본 척 하고, 알렌(Horace Allen) 미 공사의 애원도 듣지 않고 공사관을 제일 먼저 닫아 버렸다. 그 후로 조선 왕국을 구원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 자국들의 탐욕을 채워 일본은

여행기

밴쿠버 나들이

나를 되돌아보고 삶을 재충전했던 소중한 시간



천양곡(의대 62)

몇해 동안 중앙일보 '전문인의 코너'에 주로 정신의학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다. 전문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려고 가끔의 대 시계탑이나 동창회보에 여행 에세이를 적곤 했다.

밴쿠버 여행 중 보고 들은 세 상사를 표현해 보았다. 또 머리 속의 많은 것을 정리하며 남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전날밤= 일시적 자유를 잠깐 누려보는 휴가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그 전주곡으로 밤 늦게까지 인터넷 바둑게임을 즐기던 중 아차하는 바람에 다 이긴 바둑을 지고 말았다. 컴퓨터 마우스를 잘못 눌러 한 줄 낮은 곳에 돌을 놓고만 것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몇만리 떨어진 상대(Game ID를 보니 중국인)에게 물러달랄 수도 없다. 분하고 화가 나 잠을 설쳤다. 살만큼 산 나 이인데도 볼도 3독의 하나인 화를 다스리지 못한 내가 우습다.

▶가는날= 자리에 앉자마자 기계 이상으로 다른 비행기로 이동해야 한다는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즐거움과 피로움을 주는 게 여행 아닌가, 마음 편히 먹고 어느 승객의 불평을 귀로 흘리며 비행기를 갈아탔다.

4시간 쯤 걸려 밴쿠버에 내렸다. 금년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밴쿠버는 지구촌 도시중 가장 살기 좋은 하나로 꼽힌다.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캐나다 제일의 무역항이며 연중 여행객들로 붐비는 관광도시답게 시내 어디나 한집 건너 음식점이다.

점심은 상해 스타일 음식점을 제일 잘한다는 중국 식당에서 먹고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로 향했다.

캐나다 2대 명문중 하나인 이 대학은 태평양 연안을 끼고있는 아름다운 학교였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에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밴쿠버항에도 많은 한국산 제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조지(개 이름)= 숙소에서 조지가 두 발을 고추세우며 짖어댔다. 2년 만에 만난 조지의 눈에서 너로 전달되는 인식의 시간이 한 1초쯤 걸린 것 같았다. 녀석은 역마살이 끼었는지 여러 곳을 거쳐 이제 밴쿠버에서 노년(개 나이 10살은 사람 나이 70세)을 보내고 있다.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스크린에 조지 사진이 있을 만큼 강아지 때 키운 탓으로 내가 조지에 주는 정은 각별하다.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딸애 눈도 있

고 해서 조지를 손자 마이클로 바꾸려다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못했다. 그 사이 손자, 손녀 셋이나 생겨 이제 선택이 어려워져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Van Dusen botanic garden= 자연에 관심이 있어 여행지에 식물원이 있으면 꼭 들러본다. 빅토리아 섬의 Butchart garden은 몇년 전 방문했으므로 시내 반두센 식물원에 갔다. 시카고 Morton arboretum의 한 코너 밖에 안되는 55에이커 정도지만 세계 각지에서 들여온 나무, 꽃, 채소 등이 가득차 있는 아담한 식물원이다. Hardy(튼튼한)란 단어를 자주 쓰는 전형적 영국 발음의 여자 가이드에 의하면 이곳은 원래 골프장이었는데 상인들이 주택지로 만들려고 하자 시민, 정치인, 유지들이 힘을 합쳐 식물원으로 전환시켰다 한다.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많이 서식하는 Cannibal plant(곤충과 작은 들쥐까지 잡아 먹는 육식 식물)을 보며 살아 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법칙을 실감했다.

▶I golf, therefore I am.= 잘 치지는 못해도 나는 골프 자체에 쫓겨 배려를 느낀다. 세상 모든 경기중 자신이 점수를 매기는 유일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점수를 속이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온다. 큰 내기 경우엔 아주 심하다.

창조주께선 인간을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유혹과 양심 사이에서 고뇌하는 골퍼들을 내려다 보며 웃고 계시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골퍼들은 창조주를 즐겁게 해주는 기쁨조 효과들인 것이다.

골프 코스를 자세히 보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러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지만 코스의 진수는 남성의 상징인 페어웨이와 여성의 상징인 퍼팅 그린이다. 골퍼채(남성)로 공을 조그만 Hole(여성)에 넣는 기술은 가히 음양철학과 맞먹는다.

스탠리 Park을 산책하다 우연히 매 홀마다 봄꽃 로젠드럼과 여름꽃 수국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Par 3, 18홀 'Pitch and Putting' 코스를 만났다. 가장 긴 페어웨이가 100야드라 퍼팅, 퍼터를 밀리고 공을 사서 아내와 함께 라운드했다. 18홀을 67타 기록으로 무척 기뻐했다.

▶Homelessness= 매일 아침 동네 주위를 걸으며 길 코너 천막 생활 노숙자 부부와 눈인사를 해왔다. 이들은 아침 일찍 천막을 걷고 어디론가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온다. 어느날 그들이 보이지 않아 섭섭했다. 이 세상 이리 저리 떠도는 그들을 창조주가 지켜주시리라 믿고 싶다.

밴쿠버에는 유달리 노숙자들이 많다. 높은 건물 계단에 뛰그리고 앉아 밥과 멀치 찐지를 먹고 있는 한국인 노숙자, 동전 장롱에 고물단지 같은 바이올린을 끼고 줄고있는 노숙자, 형편에 걸맞지 않게 개까지 데리고 다니는 노숙자 등 여러 부류였다.

선진국일수록 노숙자들은 많아 사회적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1935년대 대공황시절의 뉴욕 부

두가, 한국 IMF 직후 지하철 부근은 노숙자들의 주거지로 이용됐다.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노숙자로 전락했고 많은 수가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가출자들인 소외계층 사람들이다.

나에겐 노숙자들과 인연이 짙다. 일리노이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로 근무할때 오갈 데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려고 정신증상을 과장하더라도 눈 딱 감고 입원시켜 주었다.

노숙자들을 불교의 업이나 크리스천교의 예정론이 아닌 인간의 고단한 삶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평가절하는 하지 말자. 늙은 노숙자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다면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눈물 흘린 일이 없는 자는 음악에 대해 말하지 말라’ 어느 가난했던 음악가의 외침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Breakfast= 조지와 푸카(다른 개)를 데리고 아침 먹으러 다운타운으로 걸어나왔다. 개를 잡아먹는 돌기둥이 있는 매도날드 노변식탁에 자리잡았다.

커피와 머핀을 들며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니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진다. 아내와 내가 음식을 들고있는 광경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에 문득 영화 Rio Bravo에서 딘 마틴이 불렀던 ‘My rifle, phony and me’를 콧소리로 흥내내 본다.

나는 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저 아무런 의미없이 주어진 공간에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을 뿐이다.

야생동물들 개로 길들여 장난감처럼 부리는 인간은 심판날 죄값을 치를거란 애호동물자들의 주장은 Bible내용에 어긋난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는 이제 모든 삼라만상을 관리하라”는 창조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정당화 하면서도 웬지 조지와 푸카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Stanley park= 센트럴 파크가 뉴욕의 자랑거리라면 밴쿠버엔 스탠리 파크가 있다. 19세기 후반 영국총독 Fredric Stanley(Ice hockey Stanley Cup의 동일인) 이름을 딴 공원으로 태평양을 낀 1000에이커 대지에 정원, 놀이, 숲이 있어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6마일에 걸친 바다와 육지 접적지역에 낮은 벽을 만든 Sea wall 산책로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해안선을 따라 곳곳에 모래사장이나 수영장과 하이킹로라 즐길 수 있으므로 연중 관광객이 600만이 넘는다고 한다.

숙소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공원이라 시간만 나면 공원으로 들어갔다. 어느날은 연꽃으로 온통 뒤덮인 물 위에 Blue heron이 도도히 서있는 Beaver lake와 Canadian geese, mallard, trumpet swan들이 노니는 Lost lagoon lake를 거닐었고, 다른날은 파크 정상인 Prospect point에 올라 golden gate와 모양이 비슷한 Lion bridge를 굽어 보며 salmon sandwich를 즐

겼다. 또 다른 날은 English beach가 식당에서 sea bass를 맛보며 바이크, 일광욕을 즐기는 젊은이의 활기찬 모습을 부러워 했다. 어느 날은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진 깊은 숲속 walking trail의 bench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고전을 읽었다.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나갈 때 항상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가지고 다녔다 하지 않는가. 나와 대왕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시간의 벽을 허물어 뜨리고 싶다.

가끔 숲 속을 응시한다. 사방에 둘러싸인 고독과 정적이 들꽃들의 아름다움과 새들의 합창소리에 섞여 희석된다.

‘자연을 놓아두고 천국을 논하지 말라! 19세기 중엽 하버드 졸업후 부와 명성대신 고향 뉴잉글랜드로 돌아와 월돈 호수에 동나무 집을 짓고 2년 반 동안 삶의 체험을 했던 ‘데이빗 스토우’의 말이 생각났다.

▶Sea wall drive= 바다에 접한 땅, 높은 바위를 깎아 벽을 세우고 길을 만든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한 쪽은 망망대해인 태평양, 반대 쪽은 숲과 가끔 깎아지른 절벽이 우뚝 서 있다. 멀리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 낫(crescent) 형태의 가늘프고 휘어진 듯한 sea wall drive가 눈에 아물거린다.

두 젊은 남녀가 바닷가에서 조용히 포옹하고 있다. 사랑을 속삭이든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한 두 직장인이 서로를 위로하는지 알 수 없다.

Sea wall 산책로는 거대한 크루즈 배가 정박하고 있는 밴쿠버 항에서 끝이 났다. 항구 멀리 바다 위에 몇척의 유조선이 떠 있다. 지금 미국은 Gulf만 해역의 BP oil leak로 무척 화가 나 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cool하게 대처하고 있어 재선가도에 먹구름이 끼었다.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했을 때 보여주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폭발할 것 같았던 성난 얼굴을 민초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개월 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보며 완전한 치유는 신을 통해 의사로부터 오지만 나는 의사 대신 휴가와 자연을 택한 것이었다.

▶Totem poles= Stanley park의 Rose garden을 지나 조금 안쪽에 여러 개의 totem pole이 서있는 장소에 이른다. 옛적 북미지역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사관 얼굴과 짐승(독수리, 곰, 까마귀, Thunderbird 등)을 조각한 나무기둥을 집 앞이나 무덤가에 세워 놓은게 Totem pole이다.

토템 폴은 가족관계, 족보 등을 상징하며 신분에 따라 크기가 높기도 달랐다. 마귀나 악마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토템 폴을 세워는 목적이지만 무슨 종교적 의미를 가진 우상도 예식도 아니었다.

토템 폴을 보면서 마음은 지금부터 120년 전 South Dakota의 Pine Ridge Indian reservation으로 가고 있었다. 1890년 당시 US. 7th.Calvary 연대가 무장해제를 거부하던 Sioux Indian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으로 200명 넘게 학살당했다.

Wounded knee creek massacre로 알려진 이 불행한 사건의 유

일한 생존자는 죽은 어머니 품 안에 있던 갓난 여자 아이였다. 그들은 아이 이름을 Lost bird라 지어준 후 어느 장군에게 입양시켜 미 동부로 데려 갔다. 그러나 장군이 가족들을 버리는 바람에 Lost Bird도 어린 나이에 이곳 저곳 방황하며 열사와 차별, 가난과 배고픔을 겪었다.

성인이 된 후는 집없는 여인이 겪는 인생의 쓴맛을 모두 맛보며 30대 채우지 못한 나이로 세상을 하직한다. 그녀의 비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1991년 그녀의 유해를 부모 형제가 묻혀있는 Wounded knee creek에 이장해 주었던 것이다.

예전의 인디언 지역 사회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안전한 가족단위의 안식처였는데 연방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은 마약, 노름, 범죄의 소굴이 돼 Lost bird같은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흥얼거렸던 음률도 빼앗겨 Amazing grace로 둔갑하고 찬란했던 문화유산의 하나인 Totem poles도 빼앗긴 채 이곳에 쓸쓸히 서 있다.

▶Whistler= 2010년 동계 올림픽 다음날 경기가 열렸던 유명한 스키 지역이다. 산속 어느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휘파람 같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밴쿠버에서 70마일 떨어진 곳으로 서민들에게는 단일 코스, 가진 자들은 며칠 뚝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투어 버스로 가는 도중 높이 335미터의 샤논 폭포도 보고, 틈틈이 Sea to sky high way의 절경, 아직도 흰 눈이 덮여있는 빙하의 산 정상들이 눈에 들어온다. 가이드에 의하면 이 지역에 캐나다인 록키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고 인구는 미국 캘리포니아보다 조금 많지만 땅덩이가 큰 나라라 지하자원이 풍부해 나무만 팔아도 150년은 건널수 있다 했다.

Whistler mountain과 Black comb mountain 두 정상에 이어주는 Peak 2 peak Gondola에서 내려다 보는 산세는 유럽 알프스보다 스케일은 적었지만 아름다웠다. 웅장하고 섬세한 자연을 대하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지고 자연스럽게 유신론자가 돼 버린다.

이렇게 자연은 종교의 어느 성서나 법문보다 신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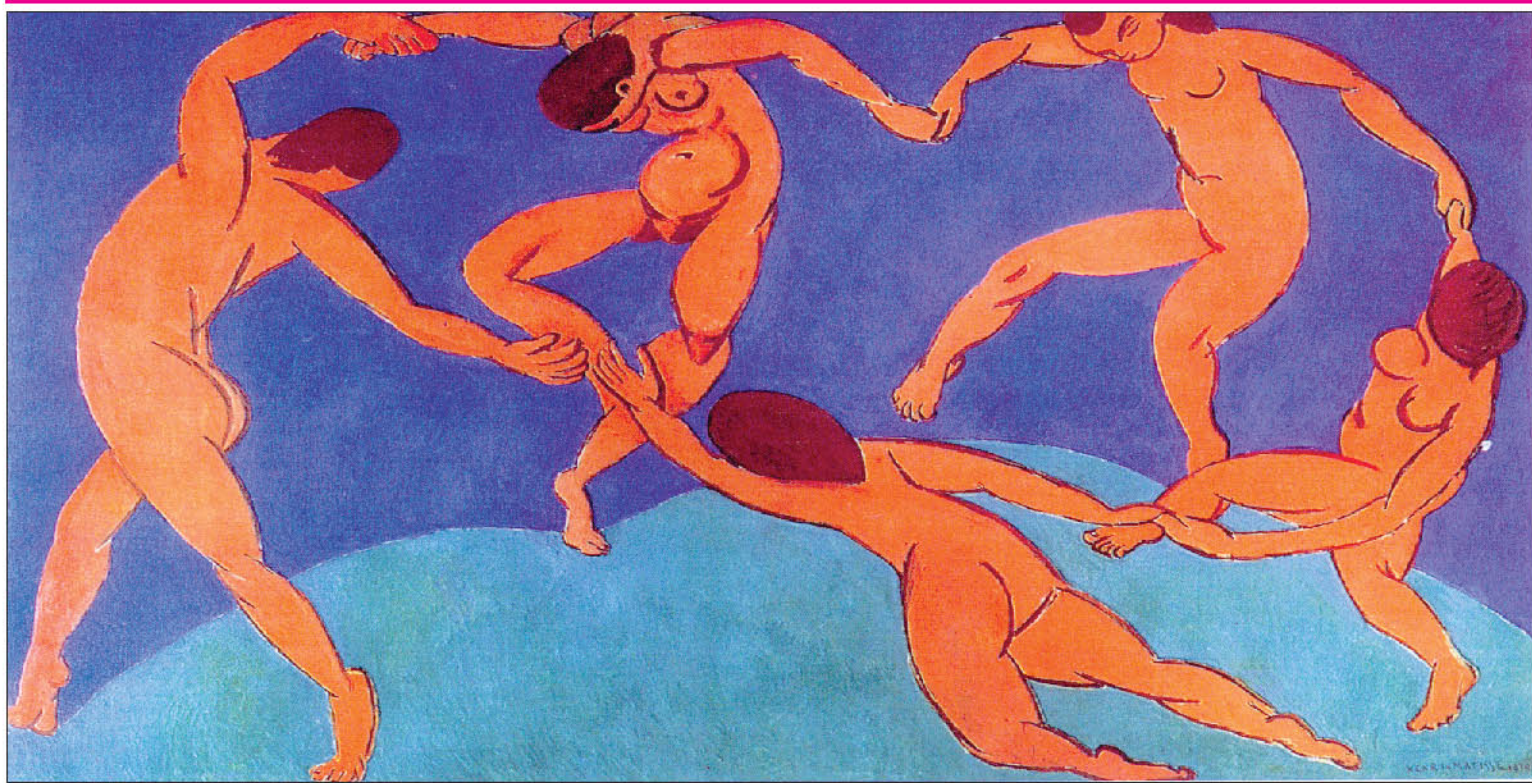
▶Granville Island=Sea bus(10명정도 태우는 조그만 보트)를 타고 섬 전체가 상가인 Granville 섬에 들렀다. 나는 별로였는데 손자를 선물로 사는 아내의 표정은 매우 밝았다. 상가 속에서 사람들을 쳐다보며 한 가마 쌀을 더해 만식을 만들려고 하인들 밥을 굶겼다는 부자 양반의 이야기가 생각 났다.

▶맺는말= 밴쿠버의 여름은 좋았다. 아침 5시 30분이면 해가 떠서 저녁 10시 어둑어둑해진다. 기온도 화씨 평균 80도를 상회하지만 습도는 거의 없어 아주 쾌적하다.

이제 자기만 위하고 남의 사정은 모른 채 하는 이기적인 현대인들의 삶, 속임과 기만이 상식적인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현대 사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세계명화 감상<7>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와 그의 명작들



‘춤’ 1909. 102" x 153" 뉴욕 현대 미술관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찬란한 색깔과 경쾌한구도, 미술의 모차르트로 칭송

임이섭(미대 54)

186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앙리 마티스(사진)는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중병에 걸려 부병할 때 그의 어머니가 화구를 사 주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술이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 미술에 전념해 20세기 초반에 주로 강한 색을 통해 대담하고 새로운 표현법을 개척, 소위 야수파 운동의 선구자로 활약했다.

그는 피카소와 함께, 그러나 대조적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의 두 거장의 한 사람으로 또한 화가중의 화가로 알려져 있다.

미술에서의 모차르트라고 불릴 만큼 찬란한 색깔과 경쾌한 구도로 평생토록 미술 탐구하면서 예술을 즐기며 장수했다.

춤

이 그림은 그의 초기 작품인데 작가 자신의 말대로 생명력과 리듬이 넘치는 작품이다. 강한

↓ ‘Bathers by River’ 1913~1917, 8.5" x 12" 시카고 미술관

붉은 색의 다섯명의 나체 댄서가 단조로운 초록과 청색 배경 위에 제각기 다른 율동으로 흥겹게 춤추며 하나의 원을 그리어 내고 있다. 당시 야수파의 강하고 단조로운 색깔로, Igor Stravinsky의 음악작품 ‘봄의 축제’에서 영감을 얻어 구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원근법을 무시한 단순화된 구도와 색채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도 했다.

Bathers by River

1909년 러시아의 부호 수집가의 청탁으로 마티스는 ‘강가에서 목욕하는 여인들’을 그렸지만 거절당하고, 그후 8년동안 그는 미술에 숨어들어 이 작품과 씨름했다. 당시 피카소 등의 입체주의 표현이 전성기를 이룰 때, 마티스도 입체주의 표현법으로 이 작품을 그리고 또 고쳐 그려 고전한 것이 X-RAY 분석으로 드러났다.

이 그림은 최근 ‘과격함 발견’이라고 제목을 붙인 시카고



미술관과 뉴욕 현대 미술관 특별전시에서 각광을 받았다.

화려한 색과 단순한 구성으로 피카소와 대조되던 마티스에게는 대담한 모험이었으며 특별한 기간이었다.

8.5피트의 커다란 캔버스 위에 목욕하는 여인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변화와 균형을 보여준 마티스의 대작이다.

안락의자의 여인

마티스의 작품 주제는 거의 여인이었다. 앉아있는 여인,

→ ‘안락의자의 여인’ 1923, 46 cm x 39cm 필라델피아 미술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이 작품도 화려한 색깔의 장식 속에 앉아 있는 여인이 그 다채로운 배경과 하나가 됐다.

여인의 몸 가짐이나 의상은 자유로운 율동으로 가득해 카펫과 벽지의 야단스러운 화려한 디자인과 협주곡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유분방한 색과 구성은 통일과 균형을 이루어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The Swimming P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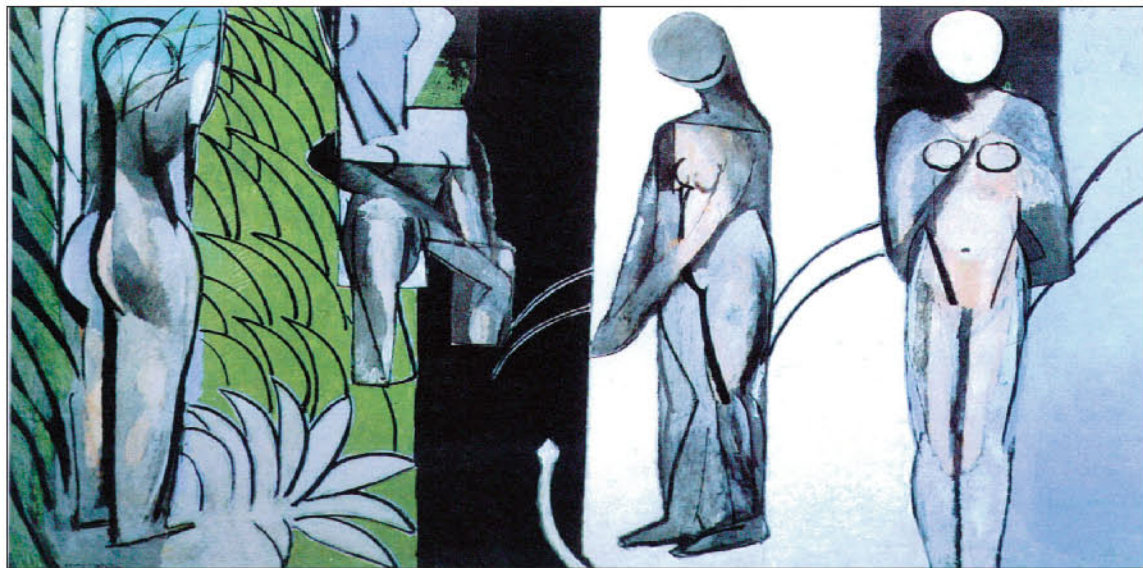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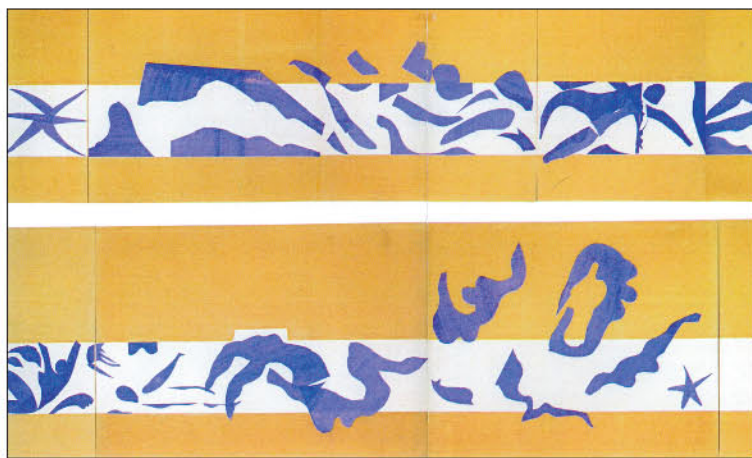
노년에 복부 암수술을 받고, 80세가 넘은 마티스는 휠체어를 타고 색종이를 오려서 콜라주 작품을 만들며 즐기고 살았다.

이 작품은 그의 다이닝 룸을 장식한 28피트 길이의 대작인데, 수영하는 사람들이 율동 속에 넘실거리며, 단조로운 색깔과 극히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마치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춤추듯 리듬의 연속으로 인생의 환희를 잘 표현했다.

평생 추구하던 단조롭고 리드미컬한 그의 미학이 절정에 다다른 듯한 작품이다.

누워 있는 여인, 생각하는 여인, 더러는 선정적인 여인을 그렸다. 평생 순수한 미술 추구하고 연구했던 그에게 여인상은 최고의 작품소재였으며, 그의 말대로 그의 인물화 속에

↓ ‘The Swimming Pool’ 1952, 7' 7" x 28' 뉴욕 현대 미술관



지역 소식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동창회

갈보리 비전센터서 새 회기 출범식

2010년 회기 필라 동창회 출범식이 지난 8월 21일(토) 오후 6시 반 필라 근교 블루벨(Blue Bell)지역에 소재한 갈보리 비전 센터(Calvary Vision Center)에서 동문 38명과 가족 그리고 외부 손님 등 총 54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만가운 만남의 리셉션에 이어 삼삼오오 테이블에 둘러 앉아 정담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수석 부회장 주기복(농대 68)동문의 사회로 시작돼 박혜란(음대) 부회장의 지휘로 교가를 2절까지 제창했다.

앞으로 1년간(7월1일~2011년 6월30일) 봉사할 신임회장 조화연(음대 64)동문은 취임사에서 “동창들간의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부계획은 각 단과대학별로 대표를 선정해 필라 동창회 본부와 단과대학 구성원들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소통시킬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필라 동창회원들의 동문지 ‘필라 춘추’를 다시 복간하여 연 4회 발간할 것을 강조했다.

‘필라 춘추’는 이미 첫 호가

신임 조화연 회장이 앞으로 동창회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성되어 우수 준비 중이다.

이 회보에는 필라 동문들의 근황은 물론 생활 정보, 수필, 그림, 사진 등이 다양하게 수록될 것이다. ‘필라 춘추’는 1980년대 초 처음 선보여 수년간 사랑을 받으며 발행되다가 휴간된 바 있다.

그 외에 9월 동창들간 야유회 겸 체육회를 열어 골프를 비롯해 테니스, 배구, 족구, 보물찾기를, 10월에는 비전공 동문들의 음악회와 미술전람회도 준비하고 있다.

특별순서로 방미 중 필라에 들른 모교 법대 교수 최종고(법대 66학번)동문은 ‘서울대 역사 바로잡기 운동’에 대한 모교 근황을 설명해주었다.

지금까지 서울대는 기원을 해방 후 미 군정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보고 원년을 1946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일류대학으로 인정받는 서울대의 시작이 타국인들이 설립한 것으로 돼 있는데다 그 연륜 역시 100년에도 미치지 못하여 동문 교수학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서울대의 기원은 1895년으로 대한제국 시절 고종황제는 서광범의 상주에 따라 근대적 법률가의 양



필라델피아 동창회 신임 조화연 회장이 임기를 마친 손재욱 전 회장(왼쪽)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을 위해 ‘법관양성소’의 설립을 운허해 1895년 5월 6일 개교했다. 그후 1910년 한일합방 후 이 양성소는 법학전문학교로 개칭해 존속해 오다가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 법학과와 통합된다.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이 학교는 자연스럽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됐다. 지금도 서울법대 도서관에는 법관양성소 시절에 사용된 필사본 교과서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연속성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전임 이장무 총장이 퇴임 전에 새로운 원년을 공표하려고 했는데 학교 내 몇몇 소장파 젊은 교수들이 제동을 걸고 나와 이를 저지했다. 결국 논쟁 끝에 결국 다음 회장의 임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최교수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하버드나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모두 몇 명의 학생들로 시작한 미약한 기원을 가지고도 100년이 넘는 역사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서울대만

이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것은 패러독스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해외 동창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 날 또 한 분의 특별한 외빈이 참석했다.

필라델피아 근교에 사는 춘원 이광수 작가의 따님 이정화 박사도 이 박사는 원래 이화여대출신이나 “서울대 동문회가 하도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견학하러 왔다”고 하며 호모움을 표시했다.

이어 개최된 교양강좌 시간에는 엄종열 미주 전통한국문화연구원 원장(미대 61학번)이 등단하여 ‘찬란한 민족의 유산’이라는 명제로 지지심경에 대해 강연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보관되어 있는 이 책은 1372년(공민왕 21) 부처와 조사(祖師)의 계승(偏頌)·법어(法語) 등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 데 필요한 내용을 뽑아 엮은 것으로 정확한 ‘지지심체요절’ 혹은 ‘지지’라고 불린다.

이 금속활자본으로 인하여 우

리나라가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보다 70여년 앞서서 제작된 것이 판명되어 세계의 백과사전을 모두 정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1997년 베를린에서 열린 G7회담이 열렸을 때 앨 고어 부통령은 “금속활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하고 사용했지만 인류문화사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독일의 금속활자입니다”라고 자존심이 상한 독일인들을 위로해준 연설은 유명하다.

하여간 세계 최고의 문명 7개국 대표 앞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

강연이 끝나고 동문들은 아쉬움 속에 9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 날 필라델피아 동창회에서 새로 봉사할 임원으로 선출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조화연(음대 64)
▶수석부회장= 주기복(농대 68) ▶부회장= 공성곤(공대 78), 박혜란(음 84) ▶재무(회계)= 강은규(농대 95)

<점흥택>



지역 소식

뉴욕 · 시카고 · 뉴잉글랜드



뉴욕 농대 동창회

이전구 회장 취임식 및 임원 성원식

지난 8월 이전구 전 미주총동역 농과대학 동창회장에 정식 창회장이 2년 임기로 뉴욕 지역 동창회장에 정식 임원으로 인준됐다.

이 날 이전구 회장 자택에서 16명의 동문 가족, 총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과대학 뉴욕 지역 동창회장 취임식 겸 임원 성원식이 있었다.

제일 고참으로 56학번 이기덕 동문, 막내로는 엄성현 88학번

까지 32년이란 긴긴 세월을 넘어, 서둔 별의 동문 가족은 풍성한 초록 들이 마음까지 풍요롭게 해주는 가운데 시종 끝이 지 않은 웃음소리에 하루 저녁이 지나가는, 잠시나마 젊음을 되찾는 모임이었다.

←왼쪽 위 3명은 조남선 동문과 공화삼 동문 부부. 아래의 앞줄 왼쪽부터 신웅남, 윤병하 총무 담당, 두 사람 건너서 이전구 회장. 가운데줄 왼쪽부터 노재옥 부회장, 이영애, 엄성현 동문. 뒷줄 왼쪽부터 이기덕 고문, 한 사람 건너서 윤덕진, 최한웅, 손완배, 한 사람 건너서 송영익, 최철용, 김성근, 양인회 홍보 담당

이전구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국적은 바뀌어도 서둔 별의 우의는 영원하며 임기인 2년간, 마음과 몸을 다 바쳐 딸딸 뭉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동창회 활성화에 앞설 것을 다짐했다.

이 날 모든 음식은 이전구 신임회장 부부가 며칠간 직접 사서 만든 홈 메이드였다.

알맞게 맞는 양념 갈비는 최고 인기 작품, 김치, 문어 요리, 푸짐한 나물 종류가 입맛을 돋우며 각종 소프트, 하드 드링크 준비의 완벽한 초대석이 있었다.

이 날 회의와 회식이 끝난 뒤에도 몇 명의 동문은 남아서 지하실에서 노래로 목청 청소(?)를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임기 2년으로 선출된 농대 회장단 신임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이기덕(잠사학 56)
- ▶회장 = 이전구(임학 60)
- ▶부회장 = 노재옥(농가정 60)
- ▶총무 = 윤병하(농학 80)
- <글·사진=양인회·윤병하>



시카고 '스티브 강 장학재단'

장학기금 모금 행사 대성황

스티브 강 장학재단이 지난 8월 6일 장학기금 모금 문화행사를 열었다.

이 날 140여명의 후원자들이 모여 참석한 학생들의 포부와 꿈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됐다.

장학생들은 예술분야를 위시하여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영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과 대학에 재학하는 미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학생들이다.

이 날 학생들이 전시한 미술 작품 건축 디자인, 사진과 영상으로 발표된 작품들과 상영된 영화제작품들은 후원자들에게 그들의 특출한 재능과 창의력을 보여주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올해의 주제 강연은 '지적 유산'이란 과제를 다루었으

며 선현들이 쌓아 올린 훌륭한 역사에 보답하는 길은 오는 세대를 위한 봉사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후원자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년과 같이 기꺼이 후원금과 격려로 지원해 주어 목표했던 5만 달러 가 넘는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최고의 액수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주 류 회 사 스테이트

팜 보험회사의 이지용 에이전터에 공로 감사패를 수여하는 행사도 가졌다.

올해도 선택한 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는 젊은 인재들을 기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스티브 강 장학재단에서는 5만달러의 장학금을 18~20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sskangfund.org에서 download하여 지시한 대로 해당되는 부분은 빠트리지 말고 작성하며 5 통의 카피를 동봉하여 우송하고 추천서와 성적표는 해당 교수와 학교에서 직접 우송하여야 한다.

마감일은 9월 30일이며 늦어도 9월 30일 발송소인이 있어야 한다.

스티브 강 장학재단 김수상(의대 47,오른쪽) 동문이 스테이트 팜 이지용 에이전터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부 신임 윤희경 회장 취임사

“지역사회 귀감되는 동창회 될 것”



본인은 지난 7월 1일부터 1년간 뉴잉글랜드지부 동창회 제 8대 회장직무를 맡아 앞으로 다음과 같은 행사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10월 9일, 홀 스폰서십을 통한 장학기금 모금 목적 ▶교문, 이사 초청 간담회 및 강연회(10월30일, 고문 이사 동문들의 동창회를 위한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겸한 보고회. 하버드대 한국학과 D. McCann교수의 ‘한국 시조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황진이의 ‘벽계수’를 Bossa Nova 가락으로 읊기 등이 포함. ▶정기총회/신년 모임(2011년 1월22일 혹은 29일, 장소는 주보스톤 총영사관 관저, 식사 포함 모든 준비와 경비는 동창회가 부담 ▶보스톤 봄 한국가곡의 밤(2011년 4월, 한국 가곡을 성악과 소규모 기악연주로 구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홍보차원. 300석 규모의 Distler Performance Hall,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를 추진 등입니다.

제 5대 회장 윤상래 동문의 임기 만료 후 회장직을 자원하는 동문이 없어, 윤 회장이 개인적 회생을 마다하고 6~7대 회장직을 연임하며 5년 간 큰 봉사를 해주셔서 모든 동문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긍심과 상응하는 위상에 대한 성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함의 적은 표시의 총화가 동창회라고 믿습니다. 내적으로는 동문의 경조사에 예를 표하는 등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며, 서울대만이 할 수 있는 음악회와 장학선발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동문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요청합니다.

제8대 집행부와 각 위원회는 출중한 창의력과 열의를 가진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민주적 방식으로 투명한 동창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로써 동문들의 관심과 후원에 보답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 1월 신년총회와 여러 행사에서 땀과 노력을 기울이며, 동문 가내 무교하기기 기원합니다.

지역 소식

남가주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가족의 밤
08.21.2010



남가주 동창회 합리웃 볼 '가족의 밤' 행사

250여동문가족 음악과 외인에 추한 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21일 가정대 주최로 열린 '가족의 밤'은 25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오후 다섯시부터 예쁜 담장 속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인 피크닉 에리어에서의 외인을 곁들인 맛깔스런 저녁식사는 동문들의 우애를 다지기에 충분했고, 기억에 남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 날 음악회의 절정은 해마다 그러했듯이 차이코프스키(Peter Ilyich Tchaikovsky, 1840~1893)의 '1812년 서곡'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1812년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침공하였으나,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추위와 기아, 그리고 게릴라 전술을 펴는 러시아군에 의해 완전히 패퇴한다는 내용을 대규모적으로 묘사한 관현악곡입니다.

이 곡이 작곡된 경위는 1880년, 차르 알렉산더 2세가 차이코프스키의 친구인 루빈스타인(Nikolay Rubinstein)을 통해 의뢰하여 작곡되었는데, 나폴레옹 침공을 격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곡이 초연될 당시에는 실제로 대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음악은, 러시아 정교의 찬송가 'God Preserve Thy Peo-

ple'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인해 고통받는 러시아인들을 목가적인 주제와 전투적인 주제들로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전통 무곡인 'At the Gate, At my Gat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르디노 전투에서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에 맞서는 다섯 발의 러시아 대포 소리가 들리고,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초토화시키며 러시아군의 프랑스 지배를 스스로 부정하는 부분에선 승리의 종소리가 들리며, 의기양양한 "God Preserve Thy People"이 반복됩니다.

후반부에서는 11발의 우뢰같은 대포 소리와 함께 러시아의 송가 "God Save the Tsar!"가 울려 퍼집니다.

2010년 8월 21일, 할리웃 볼 야외의 음악당에서는 불꽃이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수 놓으며 거대한 폭음과 함께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홍선례 기자>

차이코프스키 소리의 색깔은? 연보라, 진분홍, 병아리 노랑, 바닷물 파랑...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소리 색깔 1 2010년 8월 21일 로스앤젤레스 할리웃 보울, 총동창회 가족의



밤 행사 중 차이코프스키 선생의 밤, 차 선생께서 자리를 같이 못해 미안하다고(그날 지휘자의 말).

▶차이코프스키 소리 색깔 2

차 선생의 1812년 서곡(1812 Overture), 나폴레옹이 겁없이 모스크바까지 쳐들어 가, 프랑스 군인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도 한겨울을 버틴다. 추운 동네 가려면 양말이나 제대로 된 걸 챙기지(이것도 지휘자의 말).

봄이 되자 러시아 군대와 한판 붙는다.

차 선생은 물론 러시아인이니 당연히 러시아군 응원가를 만든다. 그게 1812년 서곡이라.

▶차이코프스키 소리 색깔 3 마지막 대포 소리 뽕뽕 날 때 불꽃 놀이가 장관이다.

동문회 행사로 해마다 보지만 재밌다. 차 선생이고 배 선생이고 음악을 들을 줄은 모르니

이렇게 보기가

도 해야지.

지휘자 말에 의하면 1812년 서곡에는 장면 사이 사이에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조용한 부분은 병사와 애인이 헤어지는 장면, 지극히 로맨틱하다고.

두번째 조용한 장면은 딜 로넬릭 하다나. 아마도 병사와 장모가 이별하는 장면(이것도 지휘자 말).

우리 정서로는 병사와 처삼촌 정도가 이별하는게 더 이해가 될 듯.

▶Yeppen Ryoja

음악회 전반부,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콘체르토(몇번인지는 모름).

바이올린 독주를 한 여자, 이름이 Yeppen Ryoja. 보는 것도 즐거워.

음악회 시작 전 꾸민 피크닉

, 2004학번 부터 50년대 (1950년대)까지, 할아버지 세대에서 손녀 세대까지 끌고루 약 250명이 참석했다. 가정대 김옥경 회장님, 그리고 총무 강신용, 사업국장 김성수 동문들이 음식을 준비했다.

John Keats의 시를 생각한다.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ever: Its loveliness increases; it will never pass into nothingness.'

나온 김에 한마디 더:

'Beauty is Truth, Truth Beauty' ---that is all/Ye know on earth, and all ye need to know.'

이것도 Keats의 시 귀절이다.

인연이 있기에 이자리에 있겠쥬. 역시 인생은 즐겁습니다.

관세음(觀世音): 세상의 소리를 보기도 합니다.

<김지영 기자>

<www.acropolistimes.com>

논 단

전통문화

한국의 미와 멋



엄종열(미대 61)
미주 전통한국문화연구원장

최근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48%가 한국 전통문화에 가장 호감이 간다고 응답해 의외의 결과가 나온바 있다. 28%가 한국인 자체, 12%가 산업과 발전 즉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인 한국의 기업 활동을 언급했다.

지난 8월 경희대가 주관한 국제협력 여름 프로그램에 세계 각국의 젊은 대학생 140여 명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 전통문화의 높은 수준과 독특한 한국적 아름다움에 모두들 감탄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한 해 9천915명의 외국인이 자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했는데 그중에는 세계적인 응용물리학자로 3차원 영상디스플레이 분야 권위자인 러시아의 사벨리에프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한결같은 귀화이유가 한국문화가 좋아서였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은 더더욱 우리의 전통문화와 담을 쌓게 된다. 특히 이곳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한국의 문화라는 용어의 뜻조차 모를 정도로 한국 문화 문맹상태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들을 정리해 한국의 미와 멋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화 교양 강좌를 실시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버려지고 잊혀진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멋을 재발견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짐으로서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는 전기가 되기를 소원해본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를 외국에 소개함으로써 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문화자원으로 활용해 우리 문화를 세계화 할 뿐 아니라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수입의 매개체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인간사회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이라 한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사학자들이 얻은 결론 중 하나는 어떤 약소국도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온 문화민족은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것과 아무리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라도 자신들의 문화가 허약할 경우 쉽게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전자의 예로 한국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고 후자의 경우 정기스칸과 몽고제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군조선 건국 이래 올해로 4342년의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931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대부분이 대륙과 해양으로부터의 강대국 침공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날 한국은 남북 분단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당한 독립국가로 살아남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는 237개 참가국 중 7위라는 스포츠 강국으로까지 부상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민족문화를 지켜온 우수한 우리 민족의 당연한 저력이 아니겠는가.

반대로 정기스칸의 몽고족은 한때 역사상 유례없는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으나 허약한 문화 때문에 점령지에 그들의 고유 문화를 심지 못하고 도리어 점령지의 문화에 자신들이 동화돼 겨우 150년을 지탱하다가 멸망하고 지금은 중국 북쪽 변방 고원지대에서 유목생활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신세가 됐다. 막강한 문화를 지녔던 로마가 2천수백년의 수명을 누렸던 경우와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강좌에 문화유산 자료들을 항목별로 요약해 설명한다.

▶**금관과 금장식**= 5-6세기 신라시대에 왕이 쓰던 황금 관인데 금관과 300여개의 요쁜 구옥을 써서 만들어졌다. 고상하면서도 화려함이 세계 어느 금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진다. 현재 발굴된 금관은 금관총 금관을 비롯해 금령총 금관, 서봉총 금관, 천마총 금관 등 5개가 전해진다.

▶**전통공예**= 목공예를 비롯해 금속공예·죽공예·초공예·토공예·칠기공예, 자재와 말총을 이용한 공예등 다양한 재료와 기교로 만들어졌는데 거칠을 모르고 순박하기 짝이 없는 백성의 열이 잘 나타난 특징과 아름다움을 지녔다.

▶**전통의상**= 다양한 색상으로 아름다움을 지닌 전통 한복은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리는 융통성과 우아함을 지닌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이다. 왕족이나 신분에 따라 모양이나 장식에 뚜렷한 차이를 두었다.

▶**매듭**= 옷의 장식용으로 시작된 한국의 매듭은 모든 장식물에 응용된 다양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국의 전통미다.

▶**자기**= 고려청자와 이조백자를 들 수 있다. 고려청자 기술은 남달리 뛰어나 청자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본 고장 중국인들마저 ‘천하 제일’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기술면에서 아직까지 그 심오한 색도를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백자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돼 고려 때 일본에 전수됐고 이조 때 왕성히 생산했다. 무늬가 단순하고 색채도 순백이면서

순백이 아닌 연계나 연한 물빛을 머금고 있어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건축**= 조상들의 멋과 풍류가 고유한 전통의 양식 속에 감돌고 있는 한국 전통 건축은 일본·중국과는 차별되는 아름다운 곡선과 독특한 미를 지니고 있다. 처마밑·천정·기둥·기와·창틀·난간 등 건물 구성구석 장식들이 풍기는 아름다움은 타국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한국의 미와 멋이다.

일본의 건축학자인 우에노 교수는 한국 건축에 대해 “중국의 지붕은 마치 모서리를 도려낸 듯한 심한 굴곡을 보이는 형이며 일본 지붕은 단순한 직선형인데 한국의 지붕은 전혀 다른 완만한 경사로 원을 도려낸 듯한 굴곡도 직선적인 성급함도 없이 사뿐이 양쪽으로 휘어져 오르는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이다”고 평했다.

▶**종**= 원래 사찰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삼국시대 처음 제작됐으며 그 규모와 정교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신라의 에밀레 종의 소리는 장중하고 맑을 뿐 아니라 긴 여운까지 남기는 세계 유일의 종이다.

일본 NHK방송이 특집으로 ‘세계의 종’을 공개적으로 비교 평가했는데 가장 뛰어난 세계의 종으로 에밀레 종을 선정했다. 일본이 가져간 29개의 종을 포함해 현재 203개의 종이 한국 각지에 남아 있다.

▶**석상**= 한국의 석상은 전통적으로 마귀를 쫓고 왕이나 귀인들의 묘소를 지키는 수호신상을 주로 조각했으며 선비를 존귀히 여기는 선비상으로 많이 제작했다. 또한 장수를 목적으로 거북과 같은 장수동물을 조각했으며 위엄을 상징하는 사자상도 남아 있다.

▶**석탑**= 종교적인 목적과 하늘로 향하는 인간조형 본능이 탑을 쌓게 했는 데 한국의 석탑은 아담한 균형미와 안정감, 평화를 나타내는 조형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석탑은 전북 익산의 미륵사탑이며 신라시대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 백제시대 5층 석탑이 대표적이다.

▶**석등**= 삼국시대 특히 신라시대부터 시작됐다. 우리 조상들은 불을 밝히는 한 개의 석등에도 높은 미적 감각과 정성을 쏟아 문화유산으로 남겨주었다. 특히 덕수궁에 소장된 쌍사자 석등은 국보 103호로 지정된 대표적 석등이다.

▶**연**= 신라 진덕여왕때 비담 염종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김유신 장군이 만들어 띄운 것이 시초라고 한다. 그후 최영 장군이 제주도 몽고군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용으로 만들어 날렸다는 기록이 있고 이조 영조 때는 왕이 백성들과 연날리기 놀이를 해 국가적 민속놀이로 장려하고 보급했다고 한다.

세계의 연과 차별되는 한국의 연은 70여 종으로 형태나 빛깔과 점의 위치 등에 따라 이름

지어졌다.

▶**가면과 가면극**= 무한한 신비가 깃든 전통 멋이다. 중국·일본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 어려운 삶을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지만 즐거움과 해학이 넘치는 가면을 쓰고 춤과 극을 연출함으로써 삶을 즐기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국악과 국악기**= 속악·향악 등 고유의 가락으로 서양음악과는 대립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연주 모습은 공예에 해당하는 악기와 의상, 가락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미를 연출한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국악기는 현악기로 삼한시대 가야국의 우륵이라는 악사가 가얏고(지금의 가야금)를 만들었고 고구려의 왕산악이 거문고를 제작했다. 백제 또한 정음사라는 가락을 남기고 있다. 통일 신라시대 삼현은 거문고·가얏고·비파를 가리킨다. 그 밖에 많은 국악기들이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다.

▶**전통무용**= 아름다운 민족의 멋으로 한국의 춤은 흥과 감정의 총화라 할 수 있다. 규범대로 추는 궁중무용과 즉흥적 흥에 맞춰 추는 민속무용(혹은 향토무용)의 두가지로 나뉜다. 한국의 춤은 고구려 무용총의 고분벽화 ‘14인의 춤’에서 보이듯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인들의 장고춤, 농꾼들의 농악, 부채춤, 여승의 승무 등 흥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멋이다.

▶**옛절**=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쌓은 구조물로 한없는 낭만을 느끼게 한다. 민족의 노래 ‘황성옛터’에도 언급됐듯 시인들의 시상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서양의 성이 대체로 감옥처럼 폐쇄적이고 친근감이 없이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 한국의 성들은 평화롭고 목가적이며 아늑한 정을 느끼게 한다. 이조때 한양 사수를 위해 동서남북으로 축성된 남한산성·강화성·수원성·북한산성이 현존하는 대표적 한국의 성이다. 성의 종류는 평지에서 흙을 쌓아올린 토성, 산정에서 계곡을 따라 돌로 쌓은 산성, 도읍지나 성읍을 에워싼 도성, 나라와 나라 사이 경계를 길게 쌓은 장성이 있다.

▶**성문**= 성의 중심점을 이루는 성문은 단순하고도 태연한 위엄의 미를 품은 권위를 볼 수 있다. 한양의 광화문·숭례문·동대문·광희문·창의문·홍화문을 비롯해 전주에 있는 풍남문, 평양의 대동문·보통문, 개성의 남대문, 의주의 해동제일문 등 이조 때의 많은 성문들이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국보 1호 남대문은 한양 도성의 남쪽 정문이요, 왕도의 관문으로 한성의 위엄을 나타내는 기념비와도 같은 성문이다.

▶**돌다리**= 우리나라 돌다리의 유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돼 규모는 작지만 기교면에서 남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신라시대 금관총 금관

우리나라 돌다리의 표본이요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다리는 경주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다. 이 다리들의 석조기술은 유럽의 돌다리들을 능가하는 수법으로 상층·하층의 길고 짧은 것이 잘 조화된 최고의 미를 지니고 있다.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전설이 담긴 오작교를 비롯해서 청계천의 수표교, 전남 선암사교 등이 대표적인 돌다리다.

▶**기와와 풍경**= 진흙 등을 이여 섭씨 800-900도의 열을 가해 구워내는 기와는 한국 전통 건축 지붕의 기본재료다. 형태와 용도에 따라 암키와·수키와·내림새·막새·와당·초장·망아 등으로 불린다. 미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와당 무늬로는 권수·사엽·연화·용·모란 등 시대에 따라 장식무늬로 변했다. 기와로 덮은 고건축물 처마밑에 매달려 신비한 소리를 들려주는 풍경은 우리 고유의 멋이 아닐 수 없다.

▶**고분벽화**= 장엄하고 생동감있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은 25개가 존재하는데 죽안현 서강 무용총의 벽화는 고구려 최고로 평가되고 있다.

통구·안악·우현리·강서 등에 많은 고분들이 흩어져 있다. 신라의 유일한 고분벽화는 경주 155호 고분인 서봉총에서 발견된 백마승천도가 있다. 조상들은 벽화에 사상과 신앙·풍습·미적 의식을 속속들이 표현, 만고에 빛나는 한국의 미를 창조했다.

▶**한국회화**= 고서인 동사류고에 의하면 신라 진흥왕때 솔거가 천신에게 가르침을 받았더니 꿈에 단군으로부터 신필을 하사받아 황룡사의 벽화 노동도를 그렸는데 수많은 새들이 실제 나무인 줄 알고 날아와 앉으려다 머리를 찢고 땅에 떨어졌다고 솔거의 그림을 신화로 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한국 회화는 신기에 가까운 기교의 그림들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강희안의 산수인불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정선의 춘경산수도, 이정목의 목적도, 어몽룡의 월매도, 장승업과 신사임당의 화조도 등이 있다. 특별히 빼어난 화가로는 해원 신윤복과 단원 김홍도를 들 수 있다.

고국 동문

시간 · 공연

시간

■ 벽을 넘는다

-이장무 지음

지난 7월 19일 퇴임한 모교 이장무(기계공학 63~67)전임 총장이 지난 4년 올 회고하며 재임기간 중에 느낀 고뇌와 성취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책.

이 전 총장은 이 책을 통해 기회균형 선발과 지역활당제 등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모교 총장의 신분으로 만났던 세계적인 대학 총장, 석학, 명사들과의 이야기와 그들에 대한 설명, 시사점을 짚아주며 실어 격려하는 미래에 대한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서울대 출판문화원 간행 · 값 12,000원〉

■ 태평양의 바람

-김동익 지음

조선일보 기자, 중앙일보 편집국장·주필·대표, 정부 제1장관, 용인 송담대 총장 등을 역임한 김동익(법학 53~57)동문의 실명소설.

제2차 세계 대전과 해방, 한국전쟁, 4·19와 5·16, 베트남전쟁, 김대중 납치사건, 박정희와 핵개발 등 한국 현대사의 모질고 거친 궤적을 두 발로 직접 밟은 주인공 '임성래'(스티브 임)의 고백을 뼈대로 한 팩션(Faction)이다.

김동문은 이 실명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실존 인물인 스티브의 진술을 듣고 참고했으며, 그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스티브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작품을 완성했다.

〈나남 간행 · 값 10,000원〉

■ 한반도 新시나리오

-한인섭 지음

미국영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 방송국장을 역임한 워싱턴 자유아시아방송(RFA) 한인섭(정치 55~59)한국어 방송국장의 고백서.

한 동문이 지난 40여 년 동안 워싱턴에서 기자 및 방송국장으로 일하면서 한국전쟁 후 남북한과 미국의 삼각관

계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각각의 정치인, 정부 관리, 전문가들은 그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며 방향을 설정해왔는지를 기록한 책을 펴냈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핵폭탄을 화두로 남북한과 미국의 삼각트라이앵글에 주목했다.

〈문예당 간행 · 값 13,000원〉

■ 인간과 사회와 함께한 과학기술 발전의 발자취

-박준우 지음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박준우(화학 65~69)교수가 과학과 기술의 참뜻은 무엇이며, 과학과 기술이 어떤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발전하고 쇠퇴했으며,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져왔는가를 소개한다.

이 책에는 우리 주변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인명 찾아보기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출생과 사망 연대를 파악하고 어느 시대의 사람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해당 업적을 내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아카데미 간행 · 값 20,000원〉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박준우(화학 65~69)교수가 과학과 기술의 참뜻은 무엇이며, 과학과 기술이 어떤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발전하고 쇠퇴했으며,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져왔는가를 소개한다.

이 책에는 우리 주변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인명 찾아보기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출생과 사망 연대를 파악하고 어느 시대의 사람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해당 업적을 내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아카데미 간행 · 값 20,000원〉

■ 해럴드 핀터의 정치성과 성정치성

-정문령 지음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정문령(영어교육 76~80)교수가 영국의 극작가이자 활발한 정치운동가 그리고 '은밀한 페미니스트'로 생을 마감한 해럴드 핀터(200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극작품들을 분석했다.

이 책은 '생일파티', '귀향', '배신', '일종의 알래스카', '빅토리아 역', '가족의 목소리들', '마지막 한 잔', '산악 언어', '달빛', '제에서 제로', '축하파티' 등 11개 작품들에 대한 소급적 읽기를 통해 핀터의 정치성과 성정치성의 상호관계성, 이들의 도난과 전복, 그 사이에서의 새로운 되기 등을 주요 논지로 다루고 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 간행 · 값 18,000원〉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정문령(영어교육 76~80)교수가 영국의 극작가이자 활발한 정치운동가 그리고 '은밀한 페미니스트'로 생을 마감한 해럴드 핀터(200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극작품들을 분석했다.

이 책은 '생일파티', '귀향', '배신', '일종의 알래스카', '빅토리아 역', '가족의 목소리들', '마지막 한 잔', '산악 언어', '달빛', '제에서 제로', '축하파티' 등 11개 작품들에 대한 소급적 읽기를 통해 핀터의 정치성과 성정치성의 상호관계성, 이들의 도난과 전복, 그 사이에서의 새로운 되기 등을 주요 논지로 다루고 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 간행 · 값 18,000원〉

■ 화학이 안내하는 바다탐구

-김경열 지음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김경열

(화학 67~71)교수가 바다에 관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자세하게 풀어준다.



바닷물은 얼마나 잔잔지, 왜 잔잔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알게 된 바다와 표층의 바닷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 바닷물은 어떻게 섞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바다 밑해저의 모습을 통해 해저탐구에서 드러난 판구조론과 이론으로 살펴보는 바다와 해저를 얹고 있는 퇴적물이 들려주는 지난 1억여 년의 역사도 흥미롭다.

〈자유아카데미 간행 · 값 28,000원〉

■ 초콜릿 크리스천

-오태동 지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신앙생활의 고민과 영적고뇌를, 동시대를 살아온 평신도 오태동(경영 76~80)동문이 지난 4년 동안의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 정리해낸 묵상고백론.

삶의 현장과 영적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신앙과 삶의 문제는 다양하다. 특히 치열한 현대인의 삶의 문제들에 복음의 참뜻과 말씀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다.

성지 전문가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태동은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신앙이 자라가지 못한 채 답답해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형제, '초콜릿 크리스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스테이지 팩토리 간행 · 값 13,000원〉

■ 미디어 심리학

-나은영 지음

예일대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서강대 나은영(영문 81~85)교수가 인간 중심의 미디어 심리학에 대해 설명한 책.



우리가 미디어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디어의 각 장르별 특성은 무엇이고 각 장르의 독특한 연결 구조에 의해 어떠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사회심리학 이론을 적용시켜 밀도 있게 분석한다.

공연

■ 이은정 피아노독주회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이은정(기악 90~94 백석예술대 교수)동문(사진)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신로1가호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이날 베토벤, 슈만, 쇼팽 등의 작품을 연주했다.

■ 이정석 트럼본독주회

-세종문화회관

트럼본리스트 이정석(기악 82~87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동문(사진)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임버홀에서 트럼본독주회를 가졌다.

독일 테트몰트 음대를 졸업한 이 동문은 이날 에밀 로가의 협주곡을 비롯해 존 케이지, 필리프 고메르 등의 작품으로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였다.

■ 임남희 피아노독주회

-금호아트홀

미국 이스턴 음대에서 피아노 연주 및 문헌 박사학위를 받은 임남희(기악 95~99

뿐만 아니라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르간 융합현상과 인터넷, 모바일 폰,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 예술의 접점인 미디어 아트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룬다.

〈한나래 간행 · 값 15,000원〉

■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

-유재원 지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유재원(국사 98~04·법학 03~10)법제팀장이 인문학과 문화, 예술의 영역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유 동문은 평소 책을 가까이 하고 음악, 미술, 문학, 역사, 철학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



이니스앙상블 멤버)동문(사진)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신문로 1가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 허자경 피아노독주회

-금호아트홀

허자경 동문(기악 90~94 숙명여대 강사)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서 솔로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졸업한 바 있다.

이같은 경력의 허 동문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신문로 1가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했다.

허 동문은 이날 슈만, 쇼팽 등의 작품으로 청중과 호흡을 함께 했다.

■ 최유진 바이올린 독주회

-세종문화회관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최유진(기악 98~02 성신여대 강사)동문(사진)이 9월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임버홀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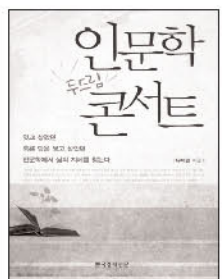
최 동문은 이날 라벨,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예프 등 20세기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라면 인문학이야말로 물질지향적인 세상을 일깨우고 각박한 일상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잡게 하며 인간의 본성을 성찰하게 한다고 말한다.

총 5부로 나뉜 이 책은 과거의 유물로 치부되기 쉬운 인문학을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이야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간행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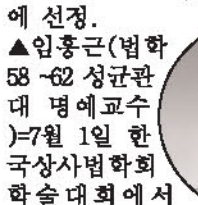
고국동문 동정

수상·인사

수상



▲황병익(법학 55-59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7월 2일 제21회 후쿠오카아시아 문화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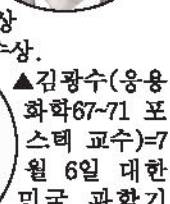
에 선정.
▲임홍근(법학 58-62 성균관대 명예교수)=7월 1일 한국상사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회 무예학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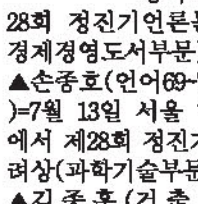
▲김광수(응용 화학 67-71 포스텍 교수)=7월 6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제8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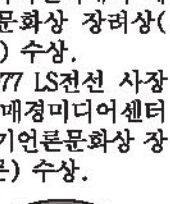
▲한민구(전기공학 67-71 모교 전기공학부 교수)=7월 6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제8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조동성(경영 67-71 모교 경영학과 교수·국제백신연구소 한국 후원회장)=7월 13일 서울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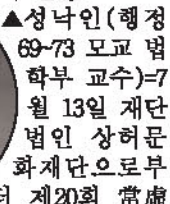
28회 정진기언론문화상 장려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손종호(언어 69-77 LS전선 사장)=7월 13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28회 정진기언론문화상 장려상(과학기술부문) 수상.



▲김종훈(건축 69-73 한미파슨스 회장)=최근 경제주간지 매경이코노미가 평가한 '2010 한국 경영대가 30인'에 선정.



▲성낙인(행정 69-73 모교 법학부 교수)=7월 13일 재단법인 상허문화재단으로부터 제20회 常虛大賞(법률부문) 수상.



▲김봉(기약 70-79 경원대 교수)=지난 7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음악평론가협회가 수여하는 제26회 서울 음악대상 수상.



▲이계승(농공학 71-75 성균관대 교수)=최근 미국 농공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최고 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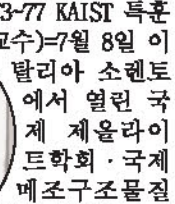
▲이대길(기계공학 71-75 KAIST 교

수)=9월 17일 제55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응용부문)수상.
▲김경진(동물학 71-75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9월 17일 제55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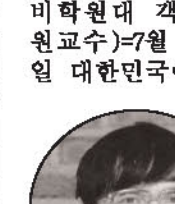
▲홍순형(금속공학 72-76 KAIST 교수)=9월 17일 제55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응용부문)수상.
▲남창희(원자핵공학 73-77 KAIST 교수)=9월 17일 제55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부문)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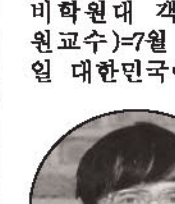
▲유룡(공업화학 73-77 KAIST 특훈 교수)=7월 8일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열린 국제 제올라이트학회·국제 메조구조물질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 한국인 최초로 브렉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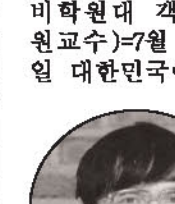
▲오우택(제약 74-78 모교 약학과 교수)=7월 6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제8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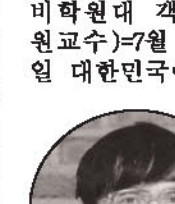
▲김한복(미생물 78-82 호서대 교수)=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국제 아인슈타인 과학자상' 수상자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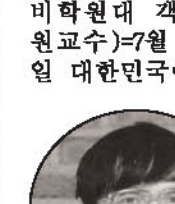
▲강석대(AIP 15기 우양기견 대표)=7월 15일 제20회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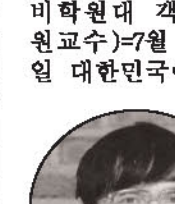
▲양기해(GLP 14기 세계종합환경 대표)=7월 12-16일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제5회 EST국제학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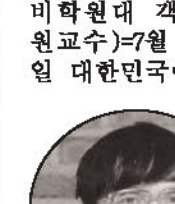
▲김상주(금속공학 49-56 모교 재료공학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장)=7월 9일 대한민국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회장에 재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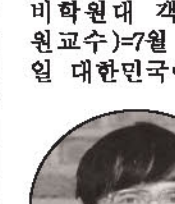
▲김연표(임학 51-58 산림임업사랑 시민연합회장)=7월 14일 퇴직 임업인 모임인 사단법인 임우회 초대회장 선출.



▲소광희(철학 53-57 모교 철학과 명예교수·예비기념사업회 이사장)=7월 9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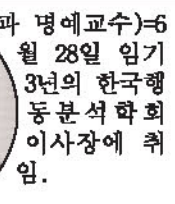
▲이세중(행정 53-57 변호사·본회 부회장)=7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에 선출.



▲이성진(교육 53-57 모교 교육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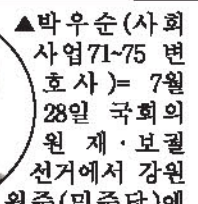
▲강석희(작곡 55-60 모교 작곡과 전 교수·일본 쇼비학원대 객원교수)=7월 7일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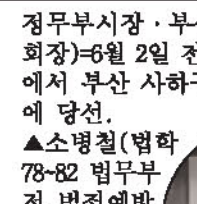
▲심현섭(행정 56-60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7월 9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한송엽(전기공학 57-63 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명예교수)=7월 9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고봉진(철학 57-64한국일보 멀티미디어 전 사장)=7월 19일 수필가들의 모임인 수필문우회 제3대 회장에 선출.



▲김민(기약 60-64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바이올리니스트)=7월 7일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선출.



▲이은(화학 65-69 모교 화학부 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7월 9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김두열(전자공학 66-70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7월 1일 KAIST 5대 고등과학원장에 취임.

▲김정기(의학 68-75 모교 의대 학장)=7월 2일 (사)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KAMC)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이사장에 재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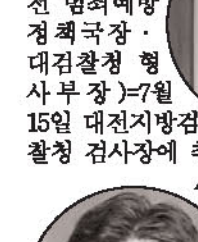
▲김효진(대학원 70졸 한국공법학전 회장·동아대 교수)=7월 9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신희섭(의학 68-74 KIST 신경과학센터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협의회 회장)=7월 9일 한국학술원 회원 선출.

▲박우순(사회사업 71-75 변호사)=7월 28일 국회의원 제·보궐선거에서 강원 원주(민주당)에서 당선.



▲신경민(사회 71-75 MBC 선임기자·본보 논설위원)=7월 16일 MBC 보도제작국 논설위원에 선임.



▲장병완(무역 71-75 호남대 총장)=7월 28일 국회의원 제·보궐선거서 광주 남구(민주당)에서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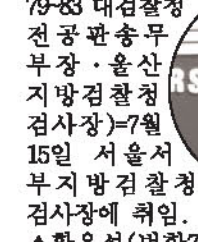
▲유명희(미생물 72-76 KIST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장)=7월 16일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에 임명.



▲최충주(경제 73-77 주한부대 전 총영사·외교통상부 본부대사)=8월 3일 주파키스탄 대사에 임명.



▲김병화(법학 74-78 대구고등검찰청 전 차장검사·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7월 15일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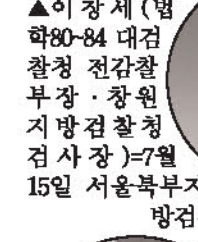
▲임태희(경영 76-80 국회의원·고용노동부 장관)=7월 16일 청와대 대통령실장에 임명.



▲김두우(외교 76-80 중앙일보 전 수석논설위원·청와대 메시지기획관)=7월 16일 청와대 기획관리실장 임명.



▲이재완(법학 76-80 전주지방검찰청 전 검사장·의정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7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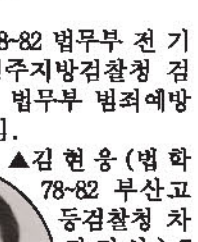
▲김학익(법학 76-80 울산지방법검찰청 전 검사장·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7월 15일 인천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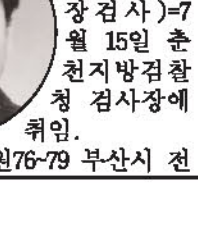
▲김수남(법학 78-82 법무부 전기정책실장·청주지방법검찰청 검사장)=7월 1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취임.



▲이경훈(행정 76-79 부산시 전



▲김병두(법학 80-84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 차장검사·춘천지방법검찰청 검사장)=7월 15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취임.



▲김득묵(정치 81-85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7월 20일 재단법인 에머그런21 대표이사에 취임.



▲국민수(사법 81-85 서울고등검찰청 전 공판부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7월 15일 청주지방법검찰청 검사장 취임.

▲최재경(공법 81-85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7월



▲한병완(법학 78-82 대검찰청 전 기획조정부장·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장)=7월 15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취임.



▲남기춘(법학 79-83 대검찰청 전 공판송무부장·울산지방법검찰청 검사장)=7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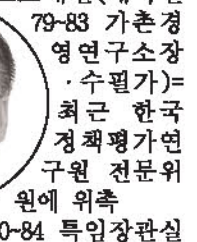
▲황윤성(법학 79-83 대구지방법검찰청 전 서부지청장·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7월 15일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취임.



▲조태현(대학원 79-83 가촌경영연구소장·수필가)=최근 한국 정책평가연구원 전문위원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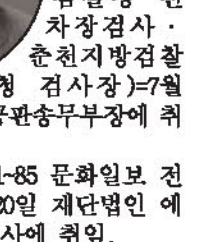
▲김인광(정치 80-84 특임장관실 특임실장)=7월 20일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실 정부1비서관에 임명.



▲이창세(법학 80-84 대검찰청 전감찰부장·창원지방법검찰청 검사장)=7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정병두(법학 80-84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 차장검사·춘천지방법검찰청 검사장)=7월 15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에 취임.



▲김득묵(정치 81-85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7월 20일 재단법인 에머그런21 대표이사에 취임.



▲국민수(사법 81-85 서울고등검찰청 전 공판부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7월 15일 청주지방법검찰청 검사장 취임.



▲최재경(공법 81-85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7월



고국 동문 동정

인사·행사·부음·재정보고

15일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취임.
▲이건위(사법81-85 서울고등검찰청 전 송무부장·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7월 15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취임.

▲이기권(행대원81-83 서울지방노동위원장)=7월 20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고용노사비서관에 임명.

▲김상협(외교82-86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7월 20일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실 녹색성장환경비서관에 임명.

▲장석명(외교82-86 청와대 공직기강팀장)=7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

▲김희관(사법82-86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 차장검사·대전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7월 15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취임.

▲조윤선(외교84-88 한나라당 전 대변인·국회의원)=7월 2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원조 홍보대사에 위촉.

▲안호원(HPM 6기 부천대 객원교수·칼럼니스트)=7월 14일 한국경찰복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 위촉.

▲정진석(ALP 10기 통장학회 이사장)=지난 7월 16일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에 임명.

중앙회장)=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새마을운동

모니터링을 위해 우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이정현(성악97-03 모교 오페라연구소 전 연구원·테너)=최근 '사랑은 기억 속에 흩어져'를 타이틀곡으로 첫 번째 솔로앨범 발매.

▲정의순(AMP 4기 극동포럼 이사장)=8월 4일 미국 LA USC Town and Gown Hall에서 李相得국회의원을 초청해

'Energy Diplomacy' 주제의 제21차 포럼 개최.

▲김철운(AMP 33기 한국물가협회장)=최근 서울대방동여성플라자에 제4회 물가안정대상 시상식 개최.

▲양재길(GLP 5기 춘곡대표)=8월 20일 경기대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받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권상철(경성사법35졸 안양과학대 이사장)=7월 24일 별세(96세)

▲양홍도(경제44-50 방문진 전 이사장)=7월 20일 별세(86세)

▲현호경(경제45-51)=7월 19일 별세(87세)

▲이석희(철학46-48 대우재단 전 이사장)=7월 22일 별세(91세)

▲강홍열(화공48-52 과학재단 전 이사장)=7월 23일 별세(82세)

▲석세조(수학50-54 시온교교장)=7월 5일 별세(79세)

▲이재웅(법학51-55 고려경제연구소 대표)=7월 17일 별세(77세)

▲조기현(법학51-55 법무부 진출입국관리국장)=7월 13일 별세

▲장지호(정치52-56 인하대 전 교수)=7월 25일 별세(78세)

▲이상희(사회53-58 모교 명예교수)=7월 9일 별세(81세)

▲김종원(토목54-58 농림부 전 기술심의관)=7월29일 별세(74세)

▲김성무(물리55-60 태평양생명 전 사장)=7월 6일 별세(77세)

▲임경빈(치의학60-66 신라치과원장)=7월 5일 별세(69세)

▲이용화(약학62-66 진양제약 전 부회장)=7월 28일 별세(68세)

▲이철곤(농화학68-76 대한도시가스 전 전무)=7월 15일 별세

▲장태완(AMP 6기 전국회의원)=7월 26일 별세(79세)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 제10대 집행부 재정보고(2010년 6월30일 현재)

예산(Income, 단위= \$)				
	Budget(2009-10)	Actual	비고	종신이사비
전년도 동창회비 이월금		1,681.27	1,681.27	
동창회비(2009/2010)	105,000.00	83,475.00	-21,525.00	
관악후원회비	45,000.00	87,165.00	42,165.00	
광고비	5,000.00	13,560.00	8,560.00	
평의원회비	7,000.00	8,300.00	1,300.00	
특별후원금	8,000.00	19,000.00	11,000.00	
본국 총동창회 보조금	11,000.00	9,850.00	-1,150.00	
미주 총동창회 보조금		3,700.00	3,700.00	
종신이사회비			0.00	133,679.54
회의참가비(평의원회)		9,710.00	9,710.00	
모교 발전기금		500.00	500.00	
기타		1,060.00	1,060.00	
총 수입	181,000.00	238,001.27	57,001.27	
Expense				
Office Rent	5,000.00	4,305.00	695.00	
Furniture&Equipment	5,000.00	2,084.19	2,915.81	
전화,Fax,Internet	2,500.00	1,998.59	501.41	
사무용품	3,000.00	1,508.78	1,491.22	
인쇄,우편료	7,000.00	5,433.28	1,566.72	
컴퓨터,Software	0.00	880.70	-880.70	
임원회 비용	2,500.00	4,306.10	-1,806.10	
판공비,Staff	3,000.00	658.97	2,341.03	
동창회 지부비	2,000.00	200.00	1,800.00	
경조사비	0.00	294.24	-294.24	
Accounting,Legal Fee	1,000.00	660.00	340.00	
Tax	0.00	9,166.55	-9,166.55	
Bank Service Charge	0.00	581.29	-581.29	
Trophies,Plaques	0.00	435.49	-435.49	
Website Design,Maintainer	0.00	1,616.49	-1,616.49	
동창회보편집,사무인건비	48,000.00	48,050.20	-50.20	
동창회보 조판,인쇄비	48,000.00	37,044.25	10,955.75	
동창회보 우송료	24,000.00	28,703.11	-4,703.11	
광고디자인,Commission	0.00	3,346.80	-3,346.80	
평의원회의(2009총경비)	18,000.00	23,100.86	-5,100.86	
평의원회의(2010년총경비)		22,355.28	-22,355.28	
Brain NetWork세미나경비	0.00	0.00	0.00	
본국 동창회 보조금	11,000.00	11,000.00	0.00	
종신이사회비CD			0.00	133,679.54
기타	1,000.00		1,000.00	
총 지출	181,000.00	207,730.17	-26,730.17	
잔고(2010년6월30일)			\$30,271.10	\$133,679.54

*2010~2011년 회계년도 미주 동창회 사업계획안 중 오는 11월 개최할 'Brain Net Work'의 'Workshop'을 위해 동문 독지가께서 3만 달러를 성금하셨습니다.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기타)과 동문들의 동정(직업변경,이사,활동사항 등)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편집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이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2페이지 정도(한글 약 3천자)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너무 길 때는 부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동창회와 연락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및 입학연도, 그리고 거주지역을 밝혀주셔야 동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 :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행사

▲김영태(영어교육53-57 프리씨오 명예회장)=7월 26일 서울 자양동 '더클래식 500'에서 '환단의 후예' 출판기념회 개최.

▲유동준(잠사56-60 부문장학회 이사장·수원지부동창회장)=7월 20~25일 러시아(자루비노, 크라스키노)와 중국(훈춘, 연길, 용정)을 방문해 '동북아 경제와 남북관계전망' 간담회 개최.

▲정택영(회화56-60 모교 동양화과 전 교수·박수근 화백 선양회 및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최근 고 박수근 화백 45주기를 맞아 직접 작사·작곡한 봉정동요 '봄이 왔네요' 공개.

▲이재창(법학56~60 새마을운동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무 광명회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홍원 (사회대 81) (213) 427-96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계정업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한인캐드럴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익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여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8@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삼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d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문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록관(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l.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 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하드웨어/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종규 치과그룹

* 권종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8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 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민권 치과
김민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im, M.D.
임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323) 268-8308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의대 56)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냉장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경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종교 / 사찰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삼(공대 52)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84졸업) (858) 525-3222
4228 Convo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두키하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취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안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C, MD, VA 워싱턴DC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변호사 / 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정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 / 항공

Driveteck,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수 의사 / 동물병원 / 요식업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8
Baltimore, MD 21211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l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nwyn Heights, MD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

리테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의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테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8)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07657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중개업 / 재정상담

로알 부동산

엄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nard Drive Oak Brook IL 60523

셀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 의사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학원 / 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65

MA 뉴잉글랜드

수 의사 / 동물병원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의료 / 내과 / 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 / 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B-3 Ridgefield NJ 07657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영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상(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취(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9 Fort Lee NJ 07024

무역 / 종합상사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종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상담 / 재정설계

송기뢰 기술상담
송기뢰(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재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현지 순례 *전 지역 크루즈 투어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239-0989

서비스 / 클리너 / 잠금장치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의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 / 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원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 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해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과 / 전문의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 의료원
최대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육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d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용(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d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운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로(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경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 / 교회

튼튼한 교회

김상근(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약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원(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애 오하이오

상담 / 생활설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자 / 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 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s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하틀랜드

의 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현(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교 회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 / 보험 / 리테일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비영리법인 / 리테일 / 잡화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d. #D-202 Melrose Park PA 19027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가목(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ital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효(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 / 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선(의대 67) (610) 891-3321
108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HOU 휴스턴

수의사 / 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사

한국 장 의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엔지니어링

선박경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UT 유타

서비스 / 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 / 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N.W. Gig Harbor WA 98332

의료 / 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욱(공)

영예회장 :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종(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행(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욱(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태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종민(공) 한재은(의)
신응남(농)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속(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및 임원

발 행 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관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완(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 호(공) 홍혜례(사)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강남(BC)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형광(LA)
임승쾌(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김은종(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한중철(치대 62입) 562-860-8544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차기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샌디에이고	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yeem@gmail.com
뉴욕	회장	에드워드 강(사대 60입)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윤경의(공대 57입) 703-542-7212 keyoon96@yahoo.com
	차기회장	정상목(약대 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시카고	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oung.kim007@gmail.com
	차기회장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필라델피아	회장	조화연(음대 64입) 610-328-2563
	차기회장	주기목(수의 68입) 215-938-1097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댈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공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희경(문리 62입) 508-740-9188
	차기회장	김병국(공대 71입)
미네소타	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akcheolshin@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이승택(수의대 75) 253-874-3558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차기회장	구명준(간호대68입) 913-268-0228 chungmn@yahoo.com
플로리다	회장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ah.edu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차기회장	
로키 마운틴스	회장	전남민(사대 72입)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503-587-0447
	차기회장	박희진(문리 57입) 503-848-6803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한성택(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박하일(문리 59입) 604-266-7955 hailpark@telus.net
	차기회장	이 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미주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송순영)는 연중사업계획의 하나로 전동문이 참여할수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중해크루즈 9박10일



모든옵선포함, 전일정 한국인 전문안내동행, 기항지마다 동문만을위한 전용버스운행
 Norwegian Jade 호, 9만3천톤, 승객:2402명, 승무원:1076명



인사이드룸
 \$1730
 항공료별도

Ocean View, Balcony Room
 Partial Oceanview 있습니다.

기항지	관광지
바르셀로나	몬세랏 대수도원, 구엘공원, 성가족성당, 스페인광장, 몬주익 올림픽공원
몬테카를로	모나코왕궁, 대성당, 니스해변, 니스시티투어,
피렌체	두오모성당,시뇨리아광장,베키오궁전,베키오다리,단테의생가,미켈란젤로광장, 피사의사탑, 피사두오모성당
로마	바티칸박물관,성베드로대성당, 미켈란젤로 천지창조가있는 시스타나성당, 콜롯세움, 산안젤로성, 트레비분수, 스페인광장, 진실의입
나폴리	산타루치아항구, 무니비치오광장, 폼페이 유적지(폼페이거리,목욕탕,야외극장, 신전)
팔마섬	팔마 데 마요르카 시티투어, 대성당, 안익태선생의 생가방문

- 여행일정 :
- 10/08 미국-바르셀로나(항공편)
 - 10/09 바르셀로나 시내관광
 - 10/10 오전 시내관광후 배에 승선
 - 10/11 몬테카를로
 - 10/12 플로렌스/피사
 - 10/13 로마/바티칸
 - 10/14 나폴리
 - 10/15 At sea(선내)
 - 10/16 팔마섬
 - 10/17 바르셀로나 - 미국

팩키지에는 항공료를 제외한 다음모든사항이 포함됨

1. Barcelona 2 days private tour
2. Monaco/Nice private tour
3. Florence/Pisa private tour
4. Rome and Vatican private tour
5. Naples/Pompei private tour
6. Plama private tour

All tips for guide/driver included

Room Type 에 따른 계약된 그룹요금

1. Balcony room (\$2290 + Air)
2. Oceanview room(\$1890 + Air)
3. Partial Oceanview(\$1820 + Air)
4. Inside room(9층) (\$1750 + Air)
5. Inside room(8층) (\$1730 + Air)

예약및문의 : 샤프여행사 (847-759-8813 or 800-222-3586) 담당자 : Carol Kim
 Sharptour@hotmail.com

예약마감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Brain Network Workshop’

“겨레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서울대 미주 동창회에서는 조국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학자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Workshop을 개최합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장소 : JJ Grand Hotel (Tel 213-383-3000)

620 S.Harvard Blvd.(Harvard & Wilshire) L.A. CA 90005

일시 : 2010년 11월 6일(9:00~16:30)

연락처 : 서울대 미주동창회장 송순영(312-805-9202)
서울대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 김은종(310-373-2200)
서울대 LA사무소 사무국장 김인종(213-435-1974)



1. 정치사회분과 사회 : 이채진 석좌교수(Claremont McKenna College)
강명구 교수(Claremont McKenna College,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전망)
박한식 교수(Univ. of Georgia, 북한 정치의 현황과 전망)
유의영 교수(Cal. State Univ.-Los Angeles,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 차이 : 과제와 전망)
김한교 교수(Univ. of Cincinnati, 올바른 통일관의 함양)

2. 경제분과 사회 : 장용성 교수(Univ. of Rochester)
장세문 교수(Univ. of S.Alabama, 남북한 무역과 경제협력)
윤봉준 교수(State Univ. of New York, 남북 통합을 대비한 경제 제도 정비 : 노동, 복지를 중심으로)
김선웅 교수(Univ. of Wisconsin-Milwaukee, 한국의 교육 및 R & D정책의 이슈들)
정진길 교수(Howard University, 체제 전환국의 환율정책과 효과가 남북한에 시사하는 정치 경제적 의미)

3. 종합 토론 사회 : 고병철 명예교수(Univ. of Illinois at Chicago)